현대불교

제 78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음력 5월 5일 · 불기 2554년 · 주간)







여성 수도자 모여 에티오피아 돕기 한 목소리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는 6월 10일 서울 길상사에서 에티오피아 소녀 · 여성 돕기를 위한 '삼소회 음악회'를 개최했다. 삼소회 회원들의 합창, 국악명인 이생강 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랜 내전과 가뭄 등으로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에티오피아에 염소를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이다. 삼소회는 3년 간 10억 원을 모금해 염소 5 만 마리를 에티오피아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 출범

위원장 도법 스님 등 14명 위촉… 종책 자문 역할

사회 및 종단 현안에 불교적 해법 제시와 중재를 담당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화쟁위원회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왔다. 화쟁위원회는 교육, 인권, 환경, 노동, 통일 분야의 중진스님과 NGO 대표자로 구성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1기 화쟁위원으로는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자민 스님,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김종빈 前 검찰총장, 박윤흔 前 환경부장관, 윤시영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위촉됐다. 화쟁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화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매분기 1회 열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어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총무원장 혹은 5인 이상의 위원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리게 된다. 또, 화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위촉식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생각과 말이 제대로 뚫리지 못하고 막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분쟁과 갈등을 슬기롭게 풀고, 조화롭게 상생을 모색하는 화쟁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놓아두는 치료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서로 박수를 칠 수 있게 하는 다스리는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화쟁위원회가 해나갈 일"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화쟁위원회에서는 도법 스님이 위원장에 호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원택 스님과 성태용 교수가 뽑혔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중도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는 큰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의 경륜과 높은 안목이 회의를 통해 실현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회는 종령에 준한 자문기구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화쟁위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과 화쟁위원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화쟁위원회의 역할은 종령에 명시된 자문,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을 넘어 초법적인 실력 행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출범과 함께 첫 의제로 4대강 사업과 봉은사 사건을 선정한 화쟁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과 의제 실행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4 선지식-혜암 스님 ▶4 인터뷰-혜오 스님 ▶9 현장-파라미타 골든벨 ▶16 강의-향봉 스님

문수 스님 추모법회 일제히 봉행

조계종 종단 차원 추모사업 착수… 7월 12일 전국 동시 법회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 법회가 7월 12일(음력 6월 1일)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또, 스님의 49재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7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문수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생명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스님의 49재 막재가 끝나는 7월 18일까지 △추모사업회 구성 △전국사찰 동시 추모법회 봉행 △추모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6월 7일 밝혔다.

또 문수 스님이 마지막까지 수행했던 군위 지보사에는 무문관(無門關)이 개설되고 스님의 부도탑도 세워진다.

이에 대해 10일,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위원장 영담 · 조계종 총무부장)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확정했다. 또, 직할교구 소속 사찰과 대중이 조계사에서 진행 중인 추모기도 및 49재, 전국 법회 등 문수 스님의 추모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수 스님 추모사업회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은해사 부주지 태관 스님, 도반대표 각운 스님, 중앙승가대동문회 사무처장 원경 스님, 중앙승가대 17기 대표 성묵 스님, 행자도반대표 혜일 스님, 불교환경연대 지관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과 동화사, 월정사 등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문수 스님이 유서 첫머리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 중지 폐기'를 · 얼마나 진행됐는가 △MB정부 복지정책 현황과 빈부격차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조계종은 심포지엄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하고, 이웃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종단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추모사업을 통해 문수 스님이 유서에 남긴 유지를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장사 주지 법장 스님은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수 스님이 유서를 통해 남긴 내용을 종단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신공양까지 하며 스님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종단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심포지엄이 열리더라도 조계종이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찬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종무브리핑에서 "심포지엄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종단의 입장을 찬 · 반 중 하나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이라면서 "이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획실 차장도 같은 자리에서 "사회적 현안에 총무원이 찬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고 하나 추기경이 반대의사를 발표하지는 않았다"며 "우리 종단의 중앙종회도 4대강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조계종 총무원과는 별도로 문수 스님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 조동섭 기자

순국선열이여 극락왕생하소서

군종교구 20일 한국전쟁 60주년 천도법회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6월 20일 용산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제11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순국선열 및 군복무 중 사망한 모든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 국군불교종신도회 소속 군장성 불자, 6 · 25 외국참전무관, 주한미군, 천안함 유가족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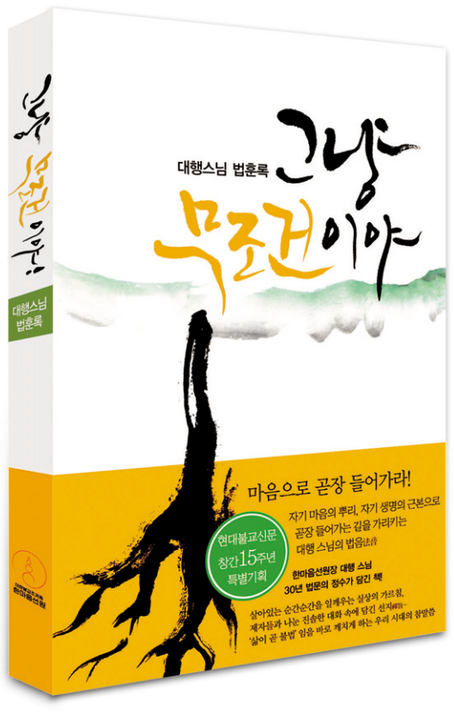
호국영령천도법회는 1부 천도의식, 2부 추모법회로 진행된다. 추모법회는 위패로 단군 건군이래 호국영가, 6 · 25참전 희생영가, 천안함 관련 희생장병 영가 등이 봉안되며 조총과 묵념, 발원문, 헌다, 헌시, 추모사 등이 진행된다. 3부 식후 행사로는 국방부 의장대 시범 및 취타대 연주, 마상무예, 선화도 그리기가 이어진다.

전쟁기념관에서 봉행되는 중앙행사 뿐만 아니라, 일선 각 부대 법당에서는 이 날을 기해 일제히 영가 천도법회가 봉행돼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을 기원한다. 이에 앞선 6월 5일 육군8군단에서 신흥사(주지 우송)와 함께 정경조 8군단장 등 군장병 4000여 명이 참여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됐으며 25일에는 육군5군단에서도 전몰장병합동위령재가 열릴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려 장병들에게 투철한 호국의지를, 불자 및 일반에게는 호국불교정신 함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켜온 호국영령천도법회가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1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한국전쟁 60주년과 천안함 사태를 맞아 호국불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제고하는 금번 호국영령 천도법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이혜륜)는 24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 가산면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충혼탑에서 제29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제도변화 · 개혁 상당한 진통 따를 듯

태고종 6월 10일 종단제도개혁안 공청회 개최

태고종이 종단제도개혁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종도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공전해 제도변화와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6월 1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종단제도개혁안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시 · 도교구원장, 종단 각급 기관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종도들의 종단제도개혁안에 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101회 중앙종회에서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제도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지혜를 모아 올해 안으로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제도개혁위원장 영우 스님은 개혁안 취지에서 "대승교화종단 태고종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혁신적으로 개혁해나가야 한다"

이어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태고종은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산다. 종단 경상비가 매월 1억여 원인 상황이지만 분담금은 7000여 종도 중 1200여 종도만이 납부하고 있다. 기존 인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종단재산 공공성을 확보하고, 종단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보살승으로서의 승려 양성과 재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사업 및 정의구현을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와 수행종풍 진작 등을 담았다.



태고종 총무원을 6월 1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종단제도개혁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줄을 제도개혁위원 스님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종단 기구들을 축소정비하고, 행정조직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3원 체제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포괄적 교육제도 확립 △사찰재산관리에 있어 공찰과 사설사암 등 2원 관리제도 적용 △교육 분담금 신설 △징계절차 합리화 △종단 임직원 업무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혁안은 발표가 진행 중에도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 원각사 주지 대각 스님은 "개혁안 취지에서 '소승적 비구불교는 자기완성을 위한 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대승적 보살불교는 인류완성을 위한 전법을 위주로 한다' 고 서술한 것은 우리 종단이 마치 수행을 하지 않는 종단이라는 어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위원장스님이 종도의 종단 운영 참여가 결여됐다고 했는데 종단 운영이 청렴 · 투명했다면 종도들이 참여하지 않을리 없다. 종단의 위정자들이 종도들의 마음을 이반시킨 것이 제일 원인이다"라고 반박했다.

제주종무원장 법담 스님은 "분담금 납부자가 1200명인데 개혁안대로라면 종무원장 선거인단이 24명밖에 안된다"면서 "총무원장 선거를 완전직선제로 가던지 적어도 종도 20명당 1명씩은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남부종무원장 양산 스님은 "개혁안에서 1개 시 · 도에 1개 지방종무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안은 기존의 종무원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제도개혁위원회는 "현재 종무원은 몇몇 마음 맞는 스님끼리 종무원을 꾸리는 등 분란의 소지가 많아 지방종무원의 대외적인 역량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에 맞춰 조정하자는 것"이라 해명했지만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집행부는 "서면으로 종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후속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과 제도개혁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끝나면 최종안을 만들어 법률자문 후 법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단개혁안 마련에 앞서 종도의 신뢰를 잃은 총무원의 신뢰부터 되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제방과 더욱 소통해야"

조계종 교육원, 선 · 율장전문대학원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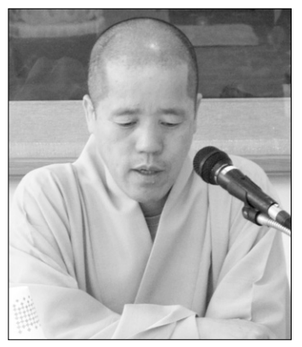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0 · 11일 각각 선전문대학원과 율장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인사말에서 "3500여 종도가 전문교육 대상자이다. 선 · 율장 · 초기불전 · 한문 등 전문대학원 특성화 · 전문화된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2011년 첫 시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10일 선전문대학원 세미나에서 "선전문대학원의 교과영역은 선사상, 선의 역사, 선전, 선문화 · 응용, 선수행 5개 영역을 동일하게 다뤘다"면서 "교과목에 현장학습 등 선실수를 포함해 생활선도 비중 있게 다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 전문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 20명 정원으로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율장 전문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 20명 정원으로 8과목 32학점을 이수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선전문대학원과 율장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원철 스님은 11일 율장전문대학원 세미나에서 "<사분율> 중심의 초기불교윤리, <범망경> 중심의 대승불교윤리, 청규 및 종헌종법을 통한 현대적 관점의 불교윤리연구를 교과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의 두 전문대학원 설립안에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스님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공통된 지적은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인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학인인 원정 스님은 10일 세미나에서 "공급자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수요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송광사 송광율원 율주 지현 스님은 11일 지정토론을 통해 "지방에서는 교육원의 교육개선안에 불신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문대학원 설립에 앞서 교육원과 종단 내 일선교육 종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도사 영축율원 전계사 혜남 스님은 "(국가제도 교육기관 명칭인) 대학원 호칭을 붙여 굳이 다른 국가공인기관과 비교되며 천대 받을 이유가 있느냐?"며 명칭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동섭 · 이은정 기자

"봉은사 걱정 안해도 돼"

명진 스님, 총무원과 협의 사실 공식화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와 관련한 협의가 총무원과 진행 중이다."

"봉은사의 어려웠던 터널 같던 일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정황으로 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 통해 깨달음 얻는데 더 노력하자."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6월 6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전환과 관련해 총무원 측과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날 스님의 발언은 지난 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데 이어 총무원과 봉은사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 중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담 스님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봉은사 직영전환 시행 등 무리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은 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어느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면서 "자비심과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상대방 자존심을 고려해 100%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를 강경히 주장했던 자신에 대해 "'총무원이 결정한 직영이 잘못됐으니 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지난 3개월 여였다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총무원 측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명진 · 영담 스님의 협상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핵심관계자는 9일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6월 9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종단 중진인 모 스님이 봉은사를 수차례 출입한 사실은 있다. 당시 봉은사 측이 제의한 안은 총무원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화쟁위원회에서 9일 종단 내 안건으로 봉은사 사태를 정해 해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수도권 포교 실패 했다"

원담 스님 토로

6 · 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조계종단의 수도권 포교는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차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에서 "6 · 2지방선거 불자당선자는 150여 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 미만이다. 특히 서울지역 당선자가 제일 적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단이 수도권 포교에 실패한 것은 직할교구 내에 공찰보다 사설사암이 많은 등 조직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교회 · 성당의 표를 의식해 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개인적 신앙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때문에 불교를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종단이 추진중인 사찰부동산관리법이 2011년 시행되면 새 종교부지를 불하받아 수도권 포교에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천태종, 상월조사 제36주기 추모대재 봉행 한국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조사의 제36주기 열반대재가 6월 9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상월원각 조사는 '상자 월자(上月)' 법명과 '원자 각자(圓覺)' 법호처럼 우리 중생에게 어두운 밤길의 밝은 달빛이었고 그 빛은 언제나 두루 차별이 없이 원만했다"고 회고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스님,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동성 단양군수 등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목동국제선센터 비전 전략 토론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는 6월 10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국제선센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목동 국제선센터의 비전과 전략수립 방안 연구' 를 통해 국제선센터의 국제적 이미지를 활용해 수행프로그램 개발, 교육사찰로서의 기능강화, 일요법회 및 외국어 법회 시행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동섭 기자

원융 화합하는 팔공산문, 새로운 팔공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26대

性門 宗師 住持 晉山式

소중한 인연을 모십니다

산색이 짙고 녹음이 푸르른 계절에
약사여래의 가피가 충만한 팔공산 동화사에서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삼호 성문 종사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합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54(2010)년 6월 26일 오전 11시
장 소 | 동화사 봉서루 앞 특설무대
문 의 | 종무소 (053) 985-4404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제26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桐華寺

“제1 의제는 4대강 · 봉은사”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의욕적으로 활동 준비

6월 8일 출범한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이 위원장에 호선됐다.

도법 스님은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쟁위원회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화쟁 사상은 신라 원효 스님의 중심사상으로 여러 대립적인 이론을 조화시키려는 불교사상 또는 교리적 쟁론의 조화를 뜻한다.

도법 스님은 “화쟁 사상은 우리 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이라며 “(화쟁사상 같은) 위대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한 점에 늘 죄송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늦게나마 자승 총무원장스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원효스님 사상으로 시대문제를 풀겠다고 해 화쟁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

#종단 현실 외면할 수 없었다

도법 스님은 그동안 수차례 “조계종단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제도권 밖에서 불교적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스님은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던 조계종단 기구의 위원장 소임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조계종단 구성원으로 사상 · 육체가 이 집단에서 형성되고 성장돼 왔다. 어렵다고 해서 (종단을) 배척할 수 없었고,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희망은 교육에 달렸다. 그런데 총무원집행부는 종단 교육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서 승가교육진흥위원에도 참여했다. 또, 평소 적을 둔 것이다. 평소 싸움을 싫어해 (정쟁 등을) 피해 다녔는데 화쟁위원회는 싸움을 말리는 일이고, 권력과 이익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자리여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 봉은사 문제 해법 제시

화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현안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회갈등, 종단 현안인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따른 갈등을 첫 의제로 선정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사업시행과 중단을 요구하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간극이 크다. 봉은사 사건도 직영전환을 두고 총무원과 봉은사의 대립 또한 만만치 않다.

도법 스님은 “화쟁은 연기적 세계관과 중도적 사고방식을 갖고 현장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는 현장이론이다. 4대강 관련 갈등에서 개발과 보존 논리의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봉은사 직영전환 문제도 각 주장의 장 · 단점을 살펴 양 측 주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고 해결점을 도출하는 것이 화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화쟁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 자문기구이지만 대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로 정부 · 국회 ·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지를 밝히는 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법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스님은 화쟁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을 종무 ·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화쟁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도법 스님은 “간담회 전 총무원장스님에게 봉은사건과 관련해 직영전환 개시의 유보와 관련자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해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면서 “총무원과 봉은사 양측의 화쟁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적 견지와 큰 틀을 갖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토론회때 명진 스님이 모두 발언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봉은사 사건의 해법이 댐겨 있다”면서 “봉은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은 한국불교를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 회쟁 문제 없다

화쟁위원회 구성을 두고 일각에서 “좌우 성향이 제 각각인 위원들이 의견 합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어떤 사안이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 이유를 “화쟁위가 권력 ·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상호간의 의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쟁위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해답을 도출하고 조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 임시위원회를 통해 사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활용해 효율적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가 제시하는 대안이 근본적이지 않아도 그 안은 화쟁의 사유로 사안에 접근해 서로의 상처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효과적 · 효율적 결과일 것이다. 상호간 신뢰하는 풍토와 조건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총무원장스님 긍정 평가 돼야

도법 스님은 “봉은사건과 관련해 총무원장 스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은 주어진 권력임에도 또, (원로회의, 중앙종회 등) 종단 내 여러기구가 이구동성으로 봉은사 직영전환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인내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스님은 간담회 직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화쟁위원회 사무실과 전문 및 실무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화쟁위원회 활동을 준비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가치로 사회갈등 해소에 앞장”

부위원장 원택 스님



“화쟁위원회를 통해 종도와 사회에 보탬 되는 성과를 이루겠다.”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쟁사상을 통한 대중공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 수종단인 조계종단이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자승 총무원장스님이 화쟁위원회를 구성해 불교적 가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의지를 밝힌만큼 화쟁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위원장 도법 스님이 4년간 탁발순례를 펼치며 사회 각 계각층서 소통해왔던 역량을 도와 종단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화쟁위원회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만연한 반목의 심성 화쟁으로 소통”

부위원장 성태용 교수



“화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반목과 대립이 만연한 사회에 화쟁이라는 태도의 확산에 힘쓰겠다.”

조계종 제1기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쟁사상의 사회적 확산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고착된 남북분단 등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부정하는 심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면서 “화쟁위원회가 화쟁사상을 통한 사회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용 교수는 “화쟁은 적당한 절충안이 아니다. 양비양시(兩非兩是)를 초월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대립된 쌍방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공동이상을 비교해 가는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화쟁위원회는 서로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편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해 화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문수 스님 뜻 이어 릴레이 기도

불교연대 6월 10일~7월 18일 추모기간 선포



6 · 2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조계사에서 개최된 문수 스님 추모제에 동참한 야당 정치인들이 4대강 사업 즉각 반대를 외치고 있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에 이어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릴레이 기도가 서울 한강선원에서 49일간 진행된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6월 10일~7월 18일을 문수 스님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한강선원에서 24시간 추모기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스님의 뜻을 대중들에게 전달해 스님의 바람이 보다 광범위하게 알려지도록 하겠다. 4대강 공사 등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문수 스님의 유언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 참회와 성찰을 위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불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수경 스님은 “4대강 저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도를 하다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대 종교 지도자 및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기간에는 매일 저녁 7~8시 참회기도 108배, 4대 종단 · 환경 운동가 등을 초청 ‘생명평화를 위한 길’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진행한다. 매주 주말에는 천도재, 1080배 참회정진 수행을 진행한다. 7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막재를 지내고, 서울광장에서 국민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5일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가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중앙승가대총동문회, 종교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주관한 행사에서 5000여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 반대 등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마음을 같이했다. **이상언 기자**

천안함 사태로 교계 대북 사업 제동

민추본 · 평불협 등 모든 행사 보류 결정

천안함 사태이후 불교계 통일관련단체가 대북 사업 대부분을 중단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 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불교계 통일관련단체들은 기념사업 등 대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됐다.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본부장 명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등은 6월 8일 6 · 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관련 회의에서 모든 행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평화재단이 10일 개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와 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8 · 15 광복절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 15 경축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대북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접촉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젊은 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



급상승 베스트 셀러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신규진입 2위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 3위
영풍문고 오늘의 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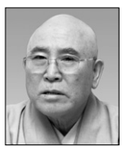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주인공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독립 전문서평단의 뜨거운 찬사!!!

천편일률적일 수도 있는 구도자의 책들에 색다른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책이다. [알라딘 : 러브캣 ★★★★★]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책이다. 하버드에 가기 위한 열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알찬 얘기들로 가득차 있어서 오랜만에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인터파크 : 너머나사랑으로 ★★★★★]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읽고도 또 읽고싶은,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곱씹게 되는 책을 읽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 quartz55 ★★★★★]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케 하며 앞으로의 나를 이끌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 역할과도 같은 그런 글들이었다. [예스24 : parkah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전화_02-2198-5151 정가 12,000원 저자 혜민 스님
*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혜민스님

일 주 문



관음사 종하 스님 장학금 전달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은 5월 26일 인천 서인천고를 방문해 학생 10여 명에게 총 1,6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6월 26~27 실상사 일대에서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한다. (063)636-3369



동백연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6월 10일 선운사 경내에서 제34회 동백연청 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봉은사 임성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8일 경내에서 영암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및 다례제,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02)511-6070



조계사 설악산 봉정암 특별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6월 18일 경산 팔공산 갓바위 약사기도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도선사 자비도량참법 백일기도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6월 17일 도선사 경내에서 자비도량참법 백일 정진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회장 세운 스님은 6월 25일 단양 천태종 구인사에서 제4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를 봉행한다.



여름불교학교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레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6월 20일 서울 구룡사에서 제45회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달마 무료 보시전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장 원묵 스님은 6월 18~20일 포항 경북일보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청소년 불우 이웃돕기 '달마 무료 보시전'을 개최한다.



불교교육연합회 포럼 개최

불교교육연합회 오영교 회장(동국대 총장)은 6월 1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불교종립학교와 종교개혁'을 주제로 불교포럼을 개최했다.

"조계종 브랜드 알리는데 주력 할 것"

개원 1주년 맞은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

한국문화의 세계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기치로 개원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전통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사진)은 6월 8일 서울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후 1년이 문화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조계종 브랜드를 살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오 스님은 2009년 11월 본부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문화원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연수를 희망하는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도 갖췄다. 또, 외주였던 문화원 식당을 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웰빙식으로 각광 받는 사찰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업체 등 성인 연수시에 가장 호응이 좋다. 문화원은 불교적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원에는 지금까지 종립학교 학생 연수 외에도 웅진그룹, 금호생명, 근화제약 등 50여 업체가 다녀갔다. 문화원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교계 외의 일반기업체 연수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다.

"연수공간이 필요해 문화원을 찾았다가 참선, 다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라는 기업체의 제의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초기에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이 미비해 시설대관 수준에 머물렀다. 1년 여간 연수를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 격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이제는 외부단체행사시 대관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의 위탁교육까지 의뢰받고 있다.

이는 혜오 스님이 좌선실, 다도실 등 다른 연수시설과 차별된 문화원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계발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이 7월 10일부터 상설 운영되는 참선 프로그램과 전통사찰 김치만들기이다. 스님은 "참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 · 수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문화원에 머물다 가는 이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문화 정서를 향유하고 만끽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참선

전통불교문화원, 참선 입문 프로그램 상설 운영

일반인을 위한 1주일 과정의 참선 입문 프로그램이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상설 운영된다.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은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1주년을 맞아 조계종단 최초로 6박 7일 과정의 참선 입문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토요일 오후 입재해 금요일 오전 회향하는 참선 입문프로그램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이 번갈아 증명법사를 맡아 법문과 화두점검을 해준다.

특강 강사로는 前 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서강대 박영재 · 서명원 교수, 변희욱 박사 등이 참여한다. 행사가이드로는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동국대 서재영 박사가 나선다.

전통불교문화원 박희승 총괄부장은 "참선 프로그램은 불교 기본교리 습득을 통한 발심 유도-> 화두 참구법 지도-> 행선과 운력을 포함한 선실수 순으로 진행돼 초심자도 누구나 쉽게 참선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참선 프로그램에는 종교를 초월해 참선을 알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23만원. 참가신청은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불교문화원은 1박2일 과정의 '선재 스님의 전통사찰 김치만들기' 과정을 개설했다.

7월 10~11일 첫 실시되는 김치만들기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은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회비는 25만원. 직접 담근 김치는 집으로 가져간다. (041)841-5050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문화원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인근 태화산 자락 3만3000㎡(1만평)에 지상 3층 규모로 2009년 6월 개원됐다. 조계종 내 각종 연수교육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전통불교문화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교육시설과 선방, 다도실, 지대방 등을 갖추고 있다.

법사전법연수교육

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는 6월 3~4일 인천 청량산 호불사에서 전법연수교육을 봉행했다.

행사는 사찰 운영과 불교와 종단 포교를 위해 청호 법사 등 40여 법사를 대상으로 교육원장 법해 스님이 주관해 진행했다.

고시위원장 원각 스님, 부산종무원장 삼주 스님,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특강을 통해 법사들에게 바른 전법을 당부했다.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화엄 스님은 회향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신도들에게 불심을 심어가는 법사님이 이 시대의 일붕선교종을 바로 지켜내는 참다운 종도"라고 말했다.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열심히 포교하는 여러분이 더욱 발심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했다. (02)998-8161

조동섭 기자

종교만큼 쉬운 것 없다

수불 스님, 불교 CEO 조찬법회서 법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왼쪽서 두번째)와 동국대 불교대학 원장 계환 스님(왼쪽서 세번째).

"종교를 믿는 목적은 어리석음[무명]을 타파하고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계환)이 6월 8일 오전 7시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불교 CEO 조찬법회에서 이 같이 법문했다.

스님은 주제법문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서 "종교는 기록이 남겨져 있느냐, 이치에 부합되느냐, 교리가 사실로 증명됐느냐의 세가지가 부합돼야 한다. 이 세가지가 부합하지 못하면 유사종교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교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종교만큼 쉬운 것은 없다.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선이 진리이지만 종교윤리는 선도 악도 진리인 것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사람이 '눈이 본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눈이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는 눈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눈이 본다. 보지 않는다의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아는 삶의 여유로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불 스님은 법문 후 동국대 불교대학에 1억원의 수불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그동안 동국대 학인 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을 발원한 스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 △영어교육 △해외 템플스테이 견학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전국 어린이 연꽃문화제



서울 · 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이 불교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다.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서울 · 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6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 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 글짓기 대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예선,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월 13일 광주지역을 끝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어린이 연꽃문화제는 마무리 됐다.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본상 수상자는 6월 16일에 발표된다.

이상언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6. 26(토) 오후 1시부터 ~ 6. 27(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옥천범음대 특강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산재가 행하여짐에 있어서 도량장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량장엄' '가사조성법' '법고무' 과정을 개설하여 특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법고무' 과정은 소정의 검증을 통하여 학교장 명의로 법고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교 수	기 간	강의요일	시 간
도량장엄	이경암 스님 (준보유자)	2010년 7월 1일 ~ 8월 5일 6주	매주 목요일	오후1시~4시
가사조성법	현 종 스님 (장벽응스님 제자)	2010년 6월 29일 ~ 8월 3일 6주	매주 화요일	오후1시~4시
법 고 무	이기봉 스님 (준보유자)	2010년 6월 30일 ~ 8월 4일 6주	매주 수요일	오후1시~4시

▶ 수강료 : 400,000(사십만원)정
▶ 재료비 : 실습 재료비 별도
▶ 문 의 : 02)392-3234

※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과 종강일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초조대장경 한일복원위 발족

초조대장경 2000여 권 복원 목표… 7월까지 복원간행도감 구성



6월 7일 발족한 고려초조대장경 한 · 일 공동복원위원회 위원 및 고문들.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1011년) 1000년을 맞아 한 · 일 공동 복원 간행위원회가 발족됐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대장경 연구 인력이 결집 · 구성된 복원간행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소실됐던 초조대장경을 복원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와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6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 일 공동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이하 복원간행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2월 고려대장경연구소 · 동화사 · 대구시가 초조대장경 천년기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 체결 후 후속조치다.

이날 복원간행위는 위원장 종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아베 코산 일본 하나조노대 학장,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UC버클리대 명예교수,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 이건무 문화재청장,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1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복원간행위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문광부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6년 간 디지털 전산화한 국내 인경본 212권과 일본 남선사 소장 인경본 1825권 등 초조대장경 2000여 권을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행위원에는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종묵 스님, 일본 교토 남선사 종무총장 고노 노리오 스님,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등 29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초조대장경 복원에 자문과 전문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복원간행위는 7월까지 복원간행도감(복원사업단)을 꾸리는 한편, 올해 안에 디지털 이미지 출력을 위한 가공에 착수하고, 초조본 종이와 가장 유사한 한지 · 인쇄 방식을 선정키로 했다. 권자본 제본에 대장경 보관용 함도 별도 제작해 올해에만 샘플본 100~160권이 제작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복원으로 한국사회 변혁 계기 되길"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장 종림 스님



"초조대장경 복원을 통해 1000년 전 조성된 초조대장경의 새로운 1000년을 여는 새 장을 열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된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 사진)은 6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식 후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으로 고려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청주 부근에서 연등회를 개최하면서 조성을 발원해 1011년 조성됐다"면서 "국난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닌 불교학의 토대와 인쇄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대작불사이다"라고 말했다.

종림 스님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정치 · 경제적인 힘이 지배해 왔다. 이제는 초조대장경 등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사상적 · 종교적인 힘을 사회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 초조대장경 복원이 한국사회 동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 일 공동복원간행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스님은 "그동안 (소장자들이) 초조대장경을 정보가 아닌 보물로 간직하려고만 해 공개를 꺼려왔다"면서 "초조대장경을 가장 많이 소장한 일본부터 설득하기로 하고 남선사가 소속된 일본 임제종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회고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교토 남선사를 설득하는데는 임제종과 유관한 일본 하나노조대에 유학했던 한국 스님 및 연구자가 많은 도움을 줬다.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이끌어 온 종림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계보가 궁금해서 대장경 연구에 일생을 매진해 왔다.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목판으로, 일본 신수대장경은 활자본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해왔다. 초조대장경 복원과 함께 전산화는 목판과 활자본에 각각 독보적 기술을 갖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범패 다양성 복원 · 계승해야"

불교문화정보연구원 '불교문화 석학강좌' 열려

"동북아 범패의 유래 등을 미뤄봐 현재 전승되지는 않지만 경상도식, 전라도식 범패 등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이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은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의 과제입니다."

권오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6월 8일 서울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이 개최한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1 – 불교와 음악'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문에는 진감 선사가 804년 당에 갔다가 830년 귀국한 후, 쌍계사에서 범패를 가르친 것으로 나와있지만 <삼국유사>의 월명사 토솔가조와 진감 선사와 동시대 사람인 일본 원인자각 대사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범패의 기록이 나타난다"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중국산동반도 등주 적산원에서는 당풍, 신라풍, 일본풍의 세 가지 범패가 있었다. 당시 신라풍 범패가 적산원에서 불렸다는 사실은 진감선사 이전 이미 경전을 향토풍(민요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강연에서 한중일 범패에서 나타나는 향토풍의 근원에 몽고 일부 부족 등에서 나타나는 알타이어족 특유의 억양 등이 있으며 이것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며 경전독송이 향토풍에 어울린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실크로드 남로 중 하나인 현재 우전(于田)에 있던 호탄(khotan)왕국은 불경 번역 작업이 활발했으며 여기에 주로 활동한 페르시아 계통의 소그트 족이 범패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범패의 다양한 유래와 각 지역별 풍토에 맞는 범패의 존재여부에도 현재 이를 복권 · 발전하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권 교수는 "범패하면 영산재로만 대표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 전승되지는 않는 다양한 범패의식을 복원 · 계승하는 것은 불교음악을 하는 이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은 불교문화 재해석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됐으며, 이번 첫 대중강좌 프로그램인 '불교와 음악'을 통해 범패, 찬불가, 민속불교음악 등 6가지 주제에 걸쳐 관계 석학들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02)242-4288 **노덕현 기자**

"불교는 종교 테두리 허물어"

달라이 라마, 대학신입생과 특별한 만남

달라이 라마가 올해 대학생이 된 티베트 젊은이들과 만났다. 6월1, 2일 인도 다람살라의 '티티베트 어린이 마을' (TCV, Tibetan Children's Village) 강당에 인도 전역의 대학에 올해 입학한 티베트 청년 3천여 명이 모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달라이 라마와의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다.

'티베트 불교와 철학, 정신 그리고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07년 시작됐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불교로 이어지는 법의 흐름과 문화의 상호관계를 강연했다.

달라이 라마는 "현대의 불교는 이미 종교의 테두리를 허물었다. 특히 티베트불교는 전 세계인의 삶 속에 녹아들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현재의 삶을 현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 젊은이들은 우리의 종교와 문화에 충분히 자부심을 지닐만하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티베트 젊은이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재 티베트불교의 한계로 제기되는 비구니 법계 문제와 티베트어의 세계화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달라이 라마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티베트 젊은이들은 티베트의 정신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100자 뉴스

벽운사 낙태 부모 수기전 16일 봉행

낙태로 피어나지 못한 태아영가를 위로하는 행사가 봉행된다.

조계종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주지 지산)은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낙태한 부모들의 참회 수기전을 개최한다.

주지 지산 스님은 "여러 사정으로 부모 · 자식간의 인연을 떨쳐버려 회한의 삶을 사는 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품안을 떠난 태아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코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979-0108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17일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신도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6월 17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에서 '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9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발제자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과 김성동 교육원 팀장, 박희승 전통불교문화원 총괄부장, 서재영 불광연구소 연구원, 이상봉 기획실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신도 교육 연수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02)2011-1911 **조동섭 기자**

천태종 임종간호 봉사자 위한 세미나 개강

천태종 수인불교임종봉사회(회장 전옥자)는 6월 10일 서울 관문사 대강의실에서 (가칭)천태임종간호 봉사단을 위한 세미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천태종 임종간호 봉사교육 세미나는 서울 관문사에서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11회에 걸쳐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호스피스 개념을 시작으로 임종간호, 호스피스의 마음가짐, 아름다운 젊음과 행복한 노년, 임종환자의 행복 찾아주기, 불교와 효 문화, 탄생과 자연, 죽음 준비와 삶의 가치, 수시와 실습, 장례문화, 장례식장 꾸미기 등이 진행된다. (02)446-1793, www.suin.or.kr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동행 구직자 위한 행복템플스테이

구직자를 위한 '행복템플스테이'가 7월 5~8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8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격은 처음 구직활동을 하거나 실직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하는 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행사는 '내 안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유명 강사와 스님 초청 강의가 진행되며 참다운 '나' 발견하기, 자기계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어울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청마감은 6월 28일까지이며, 아름다운동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2)737-9595 **이상언 기자**

연우치과 개원 1주년 6월 특별진료 이벤트

날마다좋은날 직영 연우치과(원장 정미화)가 개원 1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특별 진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별 진료는 엑스레이(X-ray)포함 무료 구강검진, 4회 치아미백 50% 할인, 스케일링 50% 할인 등이다. 또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를 6월 한달 간 진행하며 선정 작품에는 치아미백권 1장, 스케일링권 5장의 상품이 주어진다.

연우치과는 발치한 본인의 치아를 뼈 이식재로 처리해 사용하는 자가치아 뼈이식수술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다. 진료 수익금은 불교계 의료 · 봉사지원단 반갑다연우야비롯한 봉사활동 단체에 의료지원금으로 사용된다. (02)733-1030 **이상언 기자**

한번도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세요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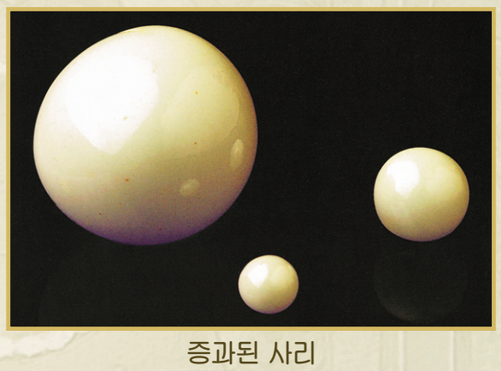
(대반야열반경)

世尊眞身舍利

부다여! 부다여! 泥蓮河의 부활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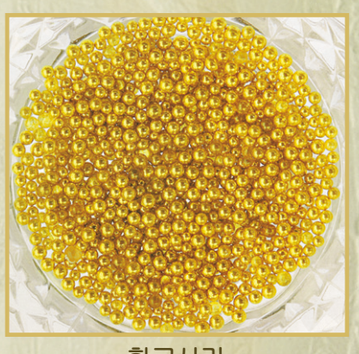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다양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증과된 사리

원래 한 개의 큰 사리에서 두 개의 사리가 증과된 신비스러운 부처님 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써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면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3. 한 권의 사리집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의 의식법회때에 법당에 모셔놓고 진행하시면 엄청난 가피(加被)를 보실수 있습니다.

• 크기 : 300mm X 300mm • 면수 : 166면

• 정가 : 280,000원 • 출간기념 특별할인가 : 200.000원 (6월 17일 ~ 6월 31일 까지)

發行人 : 社團法人 鳳庵大喜禪師 記念事業會

구입 문의 : (053) 325-0400, (053) 325-5288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18-21-0972-990 예금주:김상훈

"15년… 불국정토 기반 다져온 시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6월 10일 기념법회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복지재단은 이를 기념해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기념법회를 열었다.

19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지역사회 · 자원봉사 · 국제구호 등과 관련한 130여 복지재단 산하시설을 운영해 복지포교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아 왔다.

대표이사 자승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은 불교의 자비를 경전의 글자가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보여주신 분들과 대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귀중한 자리"라며 "재단의 15년간 발자취는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로서 불국정토의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 헌신해 온 불교사회복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재단 유공자 표창 전달식이 있었다.

우수 산하시설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 남양주시 노인복지관(법원 관장),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등이 선정됐다.

복지재단은 15주년을 맞아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기금 모금사업 '만행(萬行)'을 전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만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씨는 동참서원문 낭독과 동참서원서 작성을 통해 본격적인 자비나눔 실천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만행'은 월 1만원의 후원금 동참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운동으로 모연된 후원금은 국내 · 외 소외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에서 '만원의 행복'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상벽씨가 동참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어르신 글은 참다운 삶 느끼게 한다

6월 10일 제1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대회

요즘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전과 달리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맞춤형 복지를 원할 만큼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들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연꽃마을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열었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설립 20주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개관 10주년을 맞아 6월 1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제1회 전국어르신백일장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에 앞서 참가 신청을 받을 때만 해도 펜을 잡아본지가 오래된 어르신들은 많이 망설이셨다. 능인 스님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라고 말했고 그 때부터 여기저기서 참가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만60세 이상의 1000여 어르신들이 제1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해 숨은 기량을 뽐냈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2700여 어르신이 일산 호수공원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대를 가득 메웠다. 백일장 대회는 운문과 산문 두 분야로 주제는 유년 · 고향 · 가족 세 가지였다. 유년을 주제로 한 조희동(77) 할아버지는 시를 통해 옛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말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시 속에서나마 친구를 불러내 막걸리 한잔 하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박복순(75)할머니는 "강물도 세월도 흐르는 건 막을 수 없다.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며 자신의 글을 소개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녀로 돌아간 민영애(75) 할머니는 "원고지 사용법을 몰라 처음에는 막막했다. 내 느낌을 담은 글이 완성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각현 스님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삶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백일장 대회는 신경림 시인을 비롯한 7명의 문인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장 신경림 시인은 "서툴지만 진정성이 묻어난 어르신들의 글이 인상적이다.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글을 읽으면서 참 다운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이 나무 그늘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장기기증,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는 일"

영화배우 문소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영화배우 문소리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위촉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0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진행됐다.

문소리씨는 "장기기증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내 생명이 꺼져갈 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다. 가족들과는 모두 장기기증 등록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친구 몇 명에게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불자로서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신행 생활도 열심인 문소리씨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계약서와 장기기증신청서에 사인하고 "홍보대사로서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을 독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생명나눔의 홍보대사이자 불자 탤런트인 김혜옥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문소리씨는 두 달 전 홍보대사로 활동 할 것을 약속했다. 문씨는 곧바로 생명나눔 홈페이지에서 장기기증신청서를 작성했을 만큼 생명나눔의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칸 영화제 등 각종 행사가 겹치면서 홍보대사 위촉식이 늦어진 것.

일면 스님은 "한 사람의 나눔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홍보대사들이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일면 스님이 영화배우 문소리씨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호국영령 · 구민 위한 제22회 기원대법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김은혜)가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제22회 호국영령과 은평 구민을 위한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성운 스님은 "우리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호국불교로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선조들의 숭고한 넋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불자들은 불심으로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여한 500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해 선진 은평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발원했다. 박선주 기자

힘찬병원, 나눔의 집 후원금 전달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6월 9일 수요일 목동 힘찬병원에서 일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르는 나눔의 집(소장 안신권)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힘찬병원에서 5월 20일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1000만원과 이수찬 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 및 인근주민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수찬 원장은 2000년대 초반 나눔의 집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방송사와 시민단체의 소개로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의 무릎관절을 무료로 수술해 드렸고 그 후로 나눔의 집에서 무료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적으로 잊혀지는 추세이다. 지원의 손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잊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감사하다. 할머니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잊는 것과 같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열매가 돼 보다 많은 후원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시더라도 그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리고 경제적 돕겠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달식에는 힘찬병원과 나눔의 집과의 인연이 시작된 이옥선 할머니와 김순옥 할머니, 배춘희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그리고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목동 힘찬병원이 6월 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이옥선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김순옥 할머니,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의 모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일시 : 매주 월요일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횡사 악사요...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 부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명상의 세계화 교불련 공동포럼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 이하 교불련)가 6월 28~30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권역별 중심지역대학 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불교명상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문화)과 관광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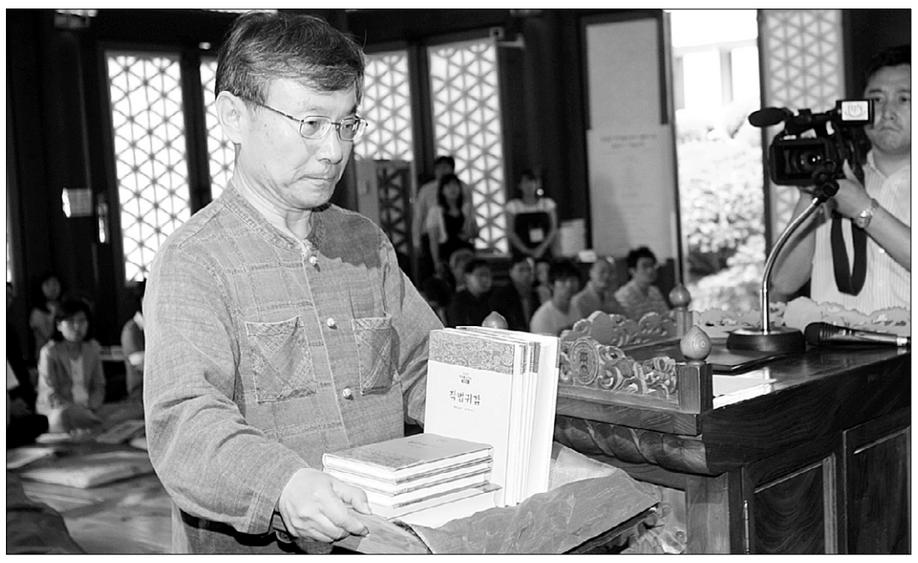
포럼은 사회학 · 교육 및 문화예술학 · 관광학 · 불교학적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김규칠 동국대 교수가 '자연과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현대 불교문화의 발전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둘째 날인 29일은 △문화관광을 통한 템플 스테이의 세계화(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와 전략(신대윤 조선대 교수)△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와 전략(홍광표 동국대 교수)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재수 동국대 교수) △선의 전등(명법 스님) △인도 철학의 명상의 의의(김선근 동국대 교수) △선문답의 교육적 생명력(이지중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명상의 세계 윤리적 가치(김용환 충북대 교수)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김성장 원광대 교수의 건강요가, 이용부 사찰문화연구원 이사장의 '21C 한국불자의 가치관' 특강이 진행될 계획이다.

최용춘 회장은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변방이 아닌, 선(禪)의 종주국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불교만의 대표적인 특색을 밝히는 자리"라며 "세계평화를 위한 이념과 방법을 모색해 세계종교간 교류와 상호 이해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한국불교 진수 한글화

'한국불교전서' 323편 2020년까지 완역… 1차 7권 봉정



박인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6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1차 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7권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삼국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국불교사상을 불교문헌으로 집대성한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가 한글로 번역돼 나온다. 한국학 · 동양학 · 국문학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았던 한국불교전서가 한글로 번역됨으로써 학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전서역주사업단(단장 박인성 · 이하 한불전역주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한국불교전서>(이하 '한불전')에 실린 323편의 불교문헌을 2020년까지 완역해 출판하기로 하고, 1차로 2010년 6월 10일 <인왕경소> <일승법계도원통기> <작법귀감> 등 7권의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를 출간했다.

한불전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집성한 <속장경(續藏經)>간행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전적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불전은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이 1979년 첫 권을 펴낸 뒤 1989년에 전 10책을 간행했고, 이후에 4책의 보유편이 나왔다.

한불전은 한문으로 된 불교전적을 발굴 조사하고, 고증을 거쳐 시대순으로 정리한 대총서(大叢書)로 일차적 학술 원전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만이 번역돼 한불전 전체에 대한 번역은 우리 인문학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한불전역주단은 2007년부터 불교학자들과 함께 문사철(文史哲)을 망라한 번역 · 연구자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켜 증의, 교감, 주석, 해제 등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번역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불교문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집들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윤문과정을 거쳤다.

박인성 단장은 "그동안 일부 번역된 한불전으로만 한국불교가 소개됐었는데 이번 한역발간을 통해 한국학 · 동양학 · 동아시아학 등 학계에 한국불교를 더욱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차 발간되는 문헌은 <인왕경소 · 신라 원측> <일승법계도원통기 · 고려 균여> <원감국사집 · 고려 원감국사> <작법귀감 · 조선 백파긍선> <정토보서 · 조선 백암 성총> <백암정토찬 · 조선 백암 성총> <일본표해록 · 조선 풍계 현정>이다.

<인왕경소>는 호국신앙의 근거가 됐던 대표적 경전인 <인왕경>에 대한 신라 원측 스님의 주석서로 폭군지도자를 경책하는 내용이 담겨 현대인들에게도 지침서가 될 만한 자료다.

<일승법계도원통기>는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대사의 <법계도>의 내용을 해설한 강의를 기록한 것이다.

<원감국사집>은 고려 후기 국사(國師)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이다. <작법귀감>은 불교의 제반의식에 필요한 의식문을 편집하여 펴낸 종합의례서다. <정토보서>는 17세기에 유통된 어떤 문헌보다 방대한 양으로 교리와 왕생담을 묶어 펴낸 종합 정토신앙서다. <백암정토찬>은 17세기 성총 스님이 노년에 자신의 삶과 수행의 지향점으로 삼아 정토신앙을 실천했는데 이를 100수가 되는 장편의 시로 승화시킨 책이다.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19세기 조선 승려의 생생한 일본표류기로 <하멜표류기>를 능가하고 있다. 이 책은 동해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조선의 배 한 척의 송환 과정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겪었던 일과 당시 일본의 풍습,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생각과 태도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출판기념 봉정식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원측의 주석서에 나타난 경전 해석 방법의 특징(백진순 동국대 외래교수) △사기류의 편찬과 <한국불교전서>(이정희 前 동국대 외래교수) △일전문헌과 한국불교전서(최연식 목포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나은 기자

유교와 불교 사이 세종의 선택

김종명 연구원 '불교학연구'서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 분석

유교를 국시로 정한 조선시대 가운데 세종시대(1418~1450)는 유교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

특히 세종은 정치 행정면에서 조선적 유교화의 틀을 정립한 군주였다. 자신이 살던 유교사회에서 스스로가 유교 군주임을 자처하던 세종은 불교의 인과설에 바탕을 둔 공덕 짓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교 사회의 백성들에게 효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제25호에 투고한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 정치'에서 세종의 불교관이 유교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은 많은 유신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사 행위를 추진했으며, 그는 자신의 불교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조치까지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세종실록> <월인천강지곡(月印天江之曲)>등 세종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1435년 5월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인과설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1440년에는 부처를 공경할 것임을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1443년 한글을 창제하고 3년 뒤에 이를 반포했는데,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책의 대부분은 불교 관련 서적들이었다.

김 연구원은 "세종은 그의 비 소헌왕후가 1446년에 세상을 떠나자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인 <석보상절>을 짓게 했다"고 말했다.

<석보상절>은 한글 창제 후 지어진 최초의 산문 작품인 동시에 한국 최초의 한글 불전이다. 김 연구원은 "이 불전은 조선 초기의 불교를 조직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불교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처음엔 한문으로 지어졌으나, 거기에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림이 추가된 후, 다시 일반인들의 불교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다시 번역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세종은 통설과는 달리 재위 초기부터 호불적 태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종의 불교관 형성에 미친 인사들은 왕실 가족, 승려 및 호불 유학자들이었다.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은 승려가 됐으며 세종의 아들들인 수양 · 양평대군은 세종의 불교 신앙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해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양대군은 "석씨의 도가 공자의 도보다 나은 것은 단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옛 유학자들이 '불교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를 높게 평가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불교관은 효, 인과, 치병, 정토왕생, 악업제거, 기우 등 공덕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세종과 관련된 불전들을 살펴볼 때 세종의 불교관은 공덕 중심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이유는 세종 치세 후기의 가족사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세종은 그의 왕후와 아들들이 죽자, 정신적 안정을 위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도움으로 궁전 옆에 사찰을 세웠다. 세종은 또한 그의 불사에 관한 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세종의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은 민생해결과 소통을 통한 교화에 최선을 기울이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불전들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출판 또는 번역케 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세종은 죽은 소헌 왕후를 위해 불경을 금자(金字)로 쓰게 하고, 불당을 짓기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특히 병과 관련된 불사가 많았다. 김 연구원은 "세종 스스로와 세자의 치병을 위한 행사들이 많았다. 세종은 자신이 아플 때 관리들로 하여금 불당과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게 했고 관리들로 하여금 불전의 경문과 발문을 쓰게 하며 궁궐 내에서는 채식을 하게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세종의 불사는 공공성을 띠고 있었으나 그의 불사에 대한 유신들의 저항 또한 거세었다. 김 연구원은 "자신의 불사에 대한 유신 세력들의 반대에 저항하기 위해 △세자에게 왕권을 넘기려는 시도 △거처 옮기기 △불사에 반대하는 관리 파면 등의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명 연구원은 "세종의 불교관은 유교 사회에서 그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종의 치세 마지막까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나은 기자

용인대 불교미술硏 '화불동연전'


현승조 作 나한도.

용인대 소속 불교미술연구소(소장 이태승)는 6월 23~29일 서울 법련사 불일 미술관에서 불교미술 전시회 '화불동연전(畵佛同硏展)'을 연다.

불교미술연구소는 용인대 불교미술 전공 개설 14주년을 맞아 학생, 교수진이 그동안 공부한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같이 모여 불화를 그리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시회'라는 뜻의 화불동연전에는 '심춘도' '양류 관세음보살도' 등 이태승 교수의 작품을 비롯해 졸업생, 재학생들이 제작한 불교 미술품 20여 점이 전시될 계획이다. (031)8020-2695 이나은 기자

제1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생 모집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갈등하고, 조화롭게 양립해 나가기 힘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률 저하와 이혼, 가족해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되는 사회의 부정적 제반문제를 최소화 하고 건강가정의 육성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지킴을 위해 상호존중과 균형있는 역할 분담 등 미래지향적인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8시간, 가정복지 20시간, 상담학 13시간, 가족심리 치료통합 접근 20시간, 다문화 복지론 8시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 14시간, 상담실습 10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내용 -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10년 6월 28일 ~ 8월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 15시)**
4.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교육장 (TEL 02)810-5075)
5. 수 강 료 : 9만원 (당일 10만원)
6.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신청. 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10년 6월 2일 ~ 6월 28일까지
9. 문 의 처 : 02)738-5586 / 02)735-040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주 관 : 사단법인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후 원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20대 들어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더군요. 군 입대 후에는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깨달음도 있었지만 곧 군대 내 계급차로 인한 갈등, 부조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면의 물음이 시작됐고 그 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불교가 저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알음알이로 알아가던 불교 사상이 혼자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 진심을 누군가에게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면을 성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랑받고도 싶지만, 혼자만의 세계가 너무 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온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 강박감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가에 뜻을 두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살면서 제 진심을 꺼내보인 적 없는 외톨이에요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면 상대도 다가옵니다

A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잘 해쳐 온 것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부적응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

내담자는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젊은이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내담자는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세요. 처음이 힘들 뿐입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러면 상대도 다가올 것입니다.

현실과 종교와의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요? 불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더군다나 출가에 뜻을 두고 계셨다고 하니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바른 불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과거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또 고민을 이렇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자세와 용기는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육법공양이 무엇인가요?

A 육법공양이란 불교의 큰 행사의식 중 하나인 전통 의식입니다. 보살행을 닦아서 대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교법으로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을 육법공양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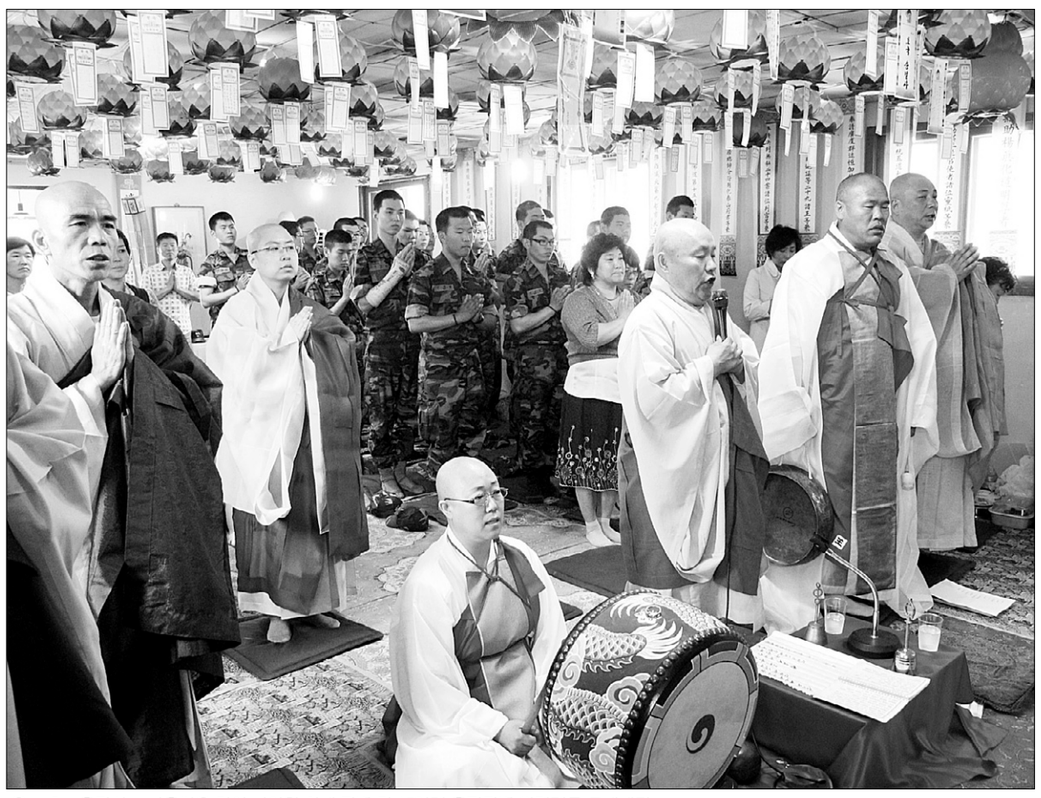
공양물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입니다. 향 공양은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부처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이 우주법계 고루고루 번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은 해탈향(解脫香)이라고 해서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함으로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합니다. 등 공양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며, 지혜와 희생 · 광명 · 찬탄을 상징합니다. 밝은 등불 층층이 밝혀 대천세계 골고루 비춰 지혜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차 공양은 사바에 찌든 죄업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 중생의 마음을 수정 알처럼 맑고 밝게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차는 감로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 공양은 부처님을 따르는 지극한 마음이 꽃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서 수행을 뜻합니다.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입니다.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불자로서 신행과 공덕을 결부하면 올바른 신행이 아니므로 언제나 바르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 정성으로 육법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군대에서 보리의 종자 뿌려요

자비법당 탐방
육군 호국충절사


육군 호국충절사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희생 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를 봉행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 봉행
불교에 친숙해지도록 사상과 기초교리 강좌에 주력

혈기왕성하고 건장한 남자들이 우글대는 곳을 뽑으라면 단연 군대를 빼놓을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늠름한 청년들이지만, 아이돌 걸 그룹이나 초코파이에 열광하는 아직은 앳된 모습이다.

육군 제2258부대 15연대 호국충절사 강정기 지도법사의 눈에는 특히나 장병들이 아들같이 느껴져 더 애틋하기만 하다.

강정기 지도법사는 6여 년 동안 충절사에서 매주 빠짐없이 일요법회를 진행해 왔다. 강 법사는 항상 군부대라는 특수성에 맞춰 불교의 법음을 장병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다.

"항상 군에 맞는 법회를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부처님의 법을 알고 사회에서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강정기 법사는 장병들을 위해 뭔가 더 특별한 법회를 마련하고자, 고심 끝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강정기 지도법사, 법산 스님, 덕화 스님을 비롯한 4명의 스님들이 함께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현재 경기도 금촌에서 작은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우연히 강정기 지도법사와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군부대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법산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항상 뭔가 특별한 법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이번 현충일을 맞아 이렇게 위령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아는 스님들끼리 선우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우회 회원이신 스님들이 선뜻 이번 법회에 함께 참석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령재는 자주 볼 수 없는 불교의식을 장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함 희생장병 및 15연대 충절장병 위령재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장병들은 법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법회의식을 진행했다. 여느 때와 다른 법회의식에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여 장병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다. 이날 위령재에는 장병들과 함께 우성제 대대장, 강기덕 주임원사도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우성제 대대장은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부대 측에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고 싶었다. 법산 스님과 강정기 법사님이 나서서 법회를 진행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대장은 "법회에 자주 참여하고 싶어도, 병사들이 내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기회에 법회에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종교적 행사가 병사들의 정신적 교화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산 스님은 "종교행사를 반대하는 부대들도 많은데, 의외로 대대장님께서 지지를 많이 해줘 활동을 하는데 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도 제2258부대 15연대에서는 장병 150명이 제등행렬을 할 정도로 부대에서는 적극 지원했다. 또한 휴가증을 상으로 걸고 <반야심경> 암송대회를 열어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의 대가인지 법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 되니, 저한테 천원을 주며 등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등값을 주느냐' 고 했더니 그냥 달면 좋을 것 같다며 정성으로 천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사실 군부대라는 곳은 불교를 완전히 알게끔 병사들에게 강요하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군 생활 당시 장병들에게 보리의 종자를 심어주고, 각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씨앗을 틔우도록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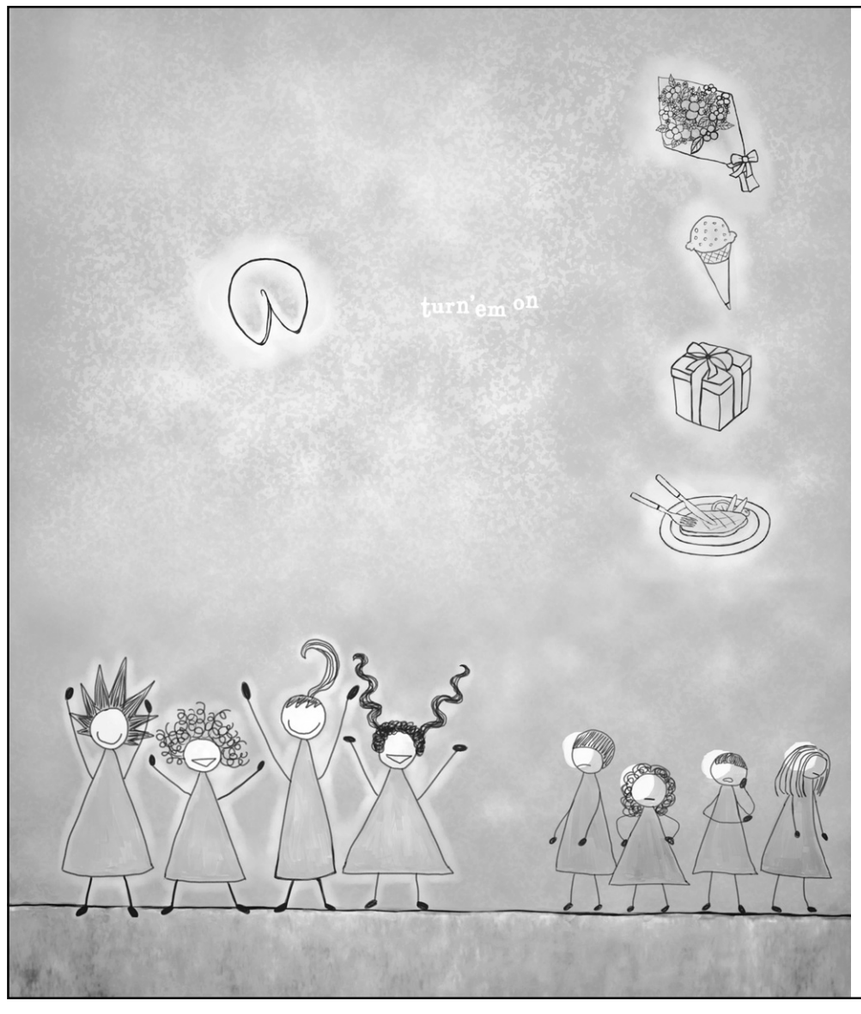
스님은 "'다음 법회 때에는 내가 피자를 사오마'라고 장난삼아 말했더니, 글쎄 바로 법회참가 인원이 늘어났다"며 "한참 많이 먹고, 공부할 시기인데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과자나 떡 하나를 더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장병들은 평소보다 더 푸짐했던 공양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날 법회를 마무리지었다.

강정기 법사는 "이번 법회는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좀 더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교가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몫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군법당 포교사를 맡게 돼, 지금까지 법회를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군포교의 일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장병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회와 함께 여러 사상과 불교의 기초교리를 더 불어 알려주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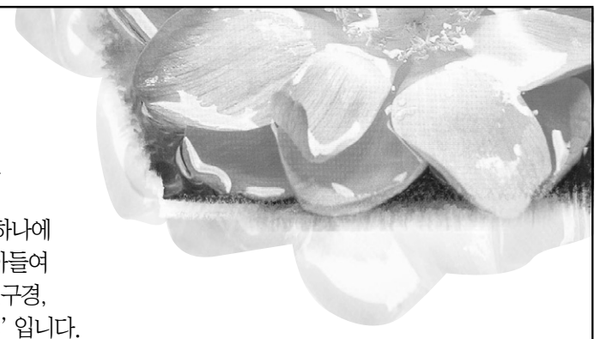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 788 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퀴즈로 푸니 재미 백만배!!"

우리가 불교 선지식



파라미타 문화재 바로 알기 골든벨



봉은사 미륵전 광장 앞에서 하생들이 2010년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단식 선서를 하고 있다.

"백제는 세 번에 걸쳐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백제가 세 번에 걸쳐 옮긴 수도의 이름을 각각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위례성, 웅진, 사비입니다."

정답이 발표되는 순간 봉은사 법왕루가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들썩거린다. 문제가 어려웠던 것일까? 많은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자, 응원을 하던 친구들은 '아~' 하는 탄성을 자아낸다. 탈락된 학생들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역력히 묻어났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명진)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6월 5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전통문화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소년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KBS1에서 방송되고 있는 도전!골든벨 퀴즈 프로그램 형식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중 · 고등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봉은사 보우당에서, 고등부는 법왕루에서 진행됐다.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통문화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은 예선문제를 통과한 50여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해 퀴즈를 푸는 방식이었다.

예선문제를 풀고, 본선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봉은사 문화재 탐방에 나섰다. 유달리 뜨겁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봉은사 경내가 그려진 탐방지도를 들고 봉은사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재들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탐방지도에는 숨은그림찾기처럼 문화재에 대한 퀴즈풀이가 적혀있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퀴즈를 풀기위해 봉은사 경내를 누볐다.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다시 모여 본선진출자 호명을 기다렸다. 본선진출에 확정된 50여

고등부 강병형 · 중등부 김용관군 우승

청소년들이 깊고 넓게 불교문화 이해하길

명의 학생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일부 예선에 떨어진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들려왔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공부한 예상문제집을 흔들며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떨어 진거야"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것도 잠시, 본선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응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문제풀이가 거듭되며 탈락자가 속속들이 나타나자, 각 학교마다 응원의 열기가 더욱 더 뜨거워졌다. 퀴즈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응원은 폭발적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위해 목청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동대부속고 1학년 강병형군과 동대부속여고 3학년 김도선양의 대결은 보는 이를 진땀나게 만들었다. 두 남 · 여학생의 승부에 각 학교의 응원 열기는 법왕루 안을 뜨겁게 달궜다.

끝까지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던 결과, 행운의 여신은 결국 동대부속고 강병형 군에게 손을 들어줬다. 접전 끝에 결국 우승을 차지한 강병형 군은 이날 "중간에 떨어질 줄 알았다. 우연치 않게 이번 퀴즈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승까지하기 돼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병형 군이 결국 우승을 차지하자, 법왕루가 떠나갈 정도로 동대부속고 학생들의 함성소리가 이어졌다. 아쉽게 준우승을 한 김도선양은 "떨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는 없다"며 "고등학교 마지막 시절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 기분이 좋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은데, 고3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강병형군에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준우승을 차지한 김도선양에는 30만원이 장학금이 상금으로 시상됐다. 또한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대부속중 김용관군과 준우승을 차지한 동대부속여중 박재림양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고등부 도전 골든벨의 사회를 맡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임용진씨는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우리 전통문화의 70%이상이 불교문화인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해 다시한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있는 행사라 학생들에게 예상문제를 미리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예상문제가 아닌 자료집을 추천해줌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더 깊고 넓게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도전 골든벨을 마친 학생들은 봉은사 미륵전 앞 광장에서 '2010년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단식' 을 진행했다. 신입회원 입단식에서는 신입회원의 입단 선서, 서울협회장 법문, 장학금 수여, 축하공연 등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불광사, 옥천암, 동국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서울파라미타 19개의 소속 학교들이 참가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부속고 강병형군이 우승을 하자 친구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



선운사 첫차 수확 '헌다례' 의식

정성 · 존경 · 사랑의 선운삼다례 의식 재현

조상과 지역 어르신, 이웃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헌다례가 6월 6일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됐다.

'2010 헌다례'는 찻잎을 따는 채다, 전통차를 만드는 제다, 전통의식으로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육법공양,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조상께 차를 올리는 헌다, 웃어른께 차를 올리는 진다, 이웃과 함께 차를 나누는 행다와 차근례, 작별례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하고 전북 교육청의 후원한 행사에는 군산여고, 고창 강호항공고, 고창고교생 108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조상께 올리는 정성, 어른께 올리는 존경,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선운삼다례 의식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재현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헌다례에는 조선 시대, 종묘 제향 에서 첫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인 초헌관(初獻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아헌관(亞獻官), 세 번의 잔 가운데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제관 종헌관(終獻官), 제사 때에 축문을 읽는 축관(祝官)이 찬조 출현해 부처님과 조상께 차를 올리는 전통 육법공양이 재현됐다.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2010 헌다례에 참여한 군산여고, 강호항공고, 고창고교생 108명이 헌다례 의식을 직접 재현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청소년들이 헌다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며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다례에 앞서 하안거 포살법회를 대웅보전에서 봉행했다.

도완 스님은 "무료 진료를 통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노인학대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많은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녹차관련 고서인 <부풍향차보>에도 언급돼 있는 차의 명소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10만 여 평 차밭이 조성된 전북 최대, 최고의 전통녹차 자생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리랑카 스님 초청 나주 심향사 법회

스리랑카 스님이 한국을 방문해,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법문을 펼쳤다.

나주 심향사와 비단고을 지혜나눔 사랑회(대표 원광, 심향사 주지)는 6월 6일 아뚜라리예 라따나 떼로(Ven. Athuraliye Rathana thero, 현 스리랑카 국회의원, 환경부 차관) 스리랑카 스님을 초청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를 위한 특별 법회를 진행했다.

심향사에서 봉행된 특별 법회에는 전남지역 스리랑카 근로자 50여 명이 동참했다.

특별법문은 일반 법요식, 빨리어 진언, 스리랑카 법문으로 진행했다.

아뚜라리예 라따나 떼로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참답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꾸는 지름길"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법문에 이어 심향사 경내에 있는 스리랑카 불상에 참배와 재한 스리랑카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한 고충과 민원을 들었다.

한편, 원광 스님은 오는 가을에 스리랑카에 답방을 갈 예정이다. 062-334-2880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 유유암 주지 종오 스님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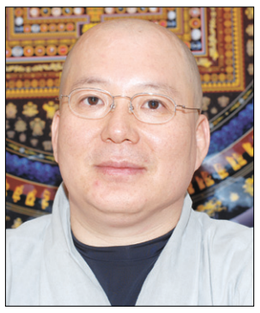
"불자들에게 공경과 예배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 유유암 종오 스님.

종오 스님은 역대 불교성인 39위의 사리 3000여점을 최첨단 장비와 초정밀 기법으로 재현해 깨달음의 세계를 성화(聖畵) 만다라로 표현 제작한 주인공이다. 종오 스님의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다양한 불교 문양과 그림, 문자 등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그려 재창조해낸 하나의 뛰어난 불교 작품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팔각원형 디자인의 만다라.



종오 스님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중앙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훌라 존자 등의 사리를 배치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펴지는 팔각원형 디자인에 부처님과 500아라한 사리를 배치하고, 지난 2006년 봉납된 성철 스님 사리도 봉안돼 가정에서도 쉽게 역대 성인들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는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 높이의 미륵불상 심장부에 3000여 점의 사리를 안치하는 불사인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에도 담길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이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를 만들게 된 것은 2008년 5월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특별전시관에서 열린 '미륵 프로젝트 심장전(心臟殿) 사리 투어'를 관람하면서다. 종오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보자마자 마치 부처님을 직접 마주한 것과 같은 기쁨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심장전'의 책임자인 카르멘 스트레이트 씨는 당시 종오 스님과 동행했던 광주방송 박종삼 촬영감독에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불교성인 39위 사리 3000점을 최첨단기법을 통해 재현하여 보관하고자 한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 이 협조요청은 '어떻게 하면 당시의 감동을 불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스님에게 전달됐다.

종오 스님은 출가 전 관련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초정밀 기법을 통하여 재현하는데 성공하게 됐다. 종오 스님은 최첨단 특수장비를 이용해 부처님 진신사리와 불교 성인 39위의 사리를 재현해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작업 내내 "작업하는 내내 기쁨으로 충만했다"며 "비록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인도 쿠시나가르에 봉안되지만, '부처님 진신사리 만다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최근 전국 사찰과 포교당에서 전통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미디어 법회의 활성화와 부처님을 홀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빛고을 광주 특성을 살린 빛의 법당 등을 계획하고 있다. 02-3275-0108,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효, 아름다운 사회 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건강나눔 의료봉사



고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노인학대예방캠페인에서 노인학대 예방 수칙 알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도완)은 6월 6일 복지관에서 400여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열린의사회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이번 행사는 내과, 외과, 한방, 치과, 혈액검사, 약 처방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9일 고창터미널 앞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캠페인'을 실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향 방문 프로그램 광주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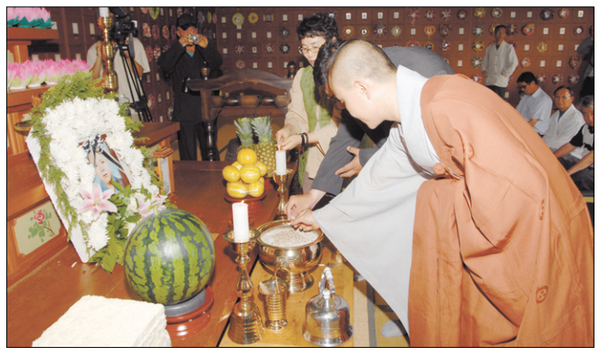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좋은세상(대표 김진희)과 공동으로 7~9월까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고국을 방문, 친정부모 한국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본 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20일 접수를 받는다. 행사는 7월에 모국 방문, 9월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주여성가족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교통비, 여권 · 비자 발급, 가이드안내 등을 해준다.

한편 이번 행사는 3월 본지 후원된 다문화열린강좌 수익금과 기업과 단체 후원으로 진행된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빈정사 문수 스님 추도법회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이 문수 스님 극락왕생 추도식에서 헌향을 하고 있다.

4대강의 뭇 생명을 위해 소신공양을 한 문수스님의 추도 법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스님)는 6월 4일 문빈정사 극락전에서 문수스님의 극락왕생 발원 의식과 추도식을 봉행했다.

추도식에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장 현지 스님, NCC 인권위원장 장헌권 목사,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점기 상임대표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선 스님은 추도사에서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불자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헛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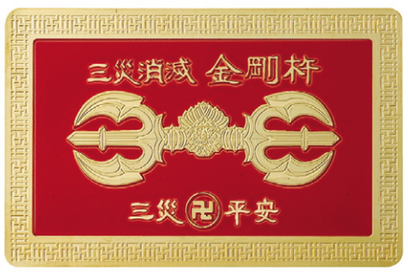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산재, 화합을 기원하며…



영산재 시연으로 국가안녕과 경제성장 기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불교문화를 넘어 세계 속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산재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음력 4월 24일) 도심 속 산사 봉원사 영산재 특별도량에서 봉행됐다.

2010년 국가안녕과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주제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열린 이번 영산재는 봉원사 대중스님을 비롯한 영산재 보존회 회원 등 300여 스님과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영산재는 이제 명실상부한 봉원사 및 태고종의 최대행사로 자리잡았다. 지난 20여년 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던 영산재는 이제는 불교공연문화의 대표격이 됐고 한국 전통 문화의 한 축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인지도 면에서도 급격한 확산을 보이며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웠다.

이러한 영산재의 위상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국가적으로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진행된 영산재는 범패와 바라춤 등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불교예술의 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매년 시연돼 온 영산재는 2007년부터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6월 6일 현충일에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영산재에서는 나라를 위해 순직한 천안함 전몰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가 함께 봉행돼 의미를 더 했다.

영산재, 어떻게 진행되나?

영산재는 안차비와 바깥차비로 구성된다. 안차비는 순수한 불교의식절차, 바깥차비는 대중적인 전통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의식 절차다.

안차비로는 영혼을 모셔오는 타종시련(打鐘侍輦), 대령(對靈), 탐 · 진 · 치의 삼독을 씻어내는 관욕, 그리고 공양드리기 전 의식 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이 행해진다.

바깥차비는 안차비와는 달리 대웅전 앞이나 절 밖의 널찍한 마당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의식을 봉행하는 곳이 곧 도량임을 알리는 영산회상도를 내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된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단을 세운다. 불단에는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하단 등 삼단으로 구성한다.

괘불이운(掛佛移運) 이후 상단권공 · 영산작법(上壇勸供 · 靈山作法), 식당작법(食堂作法),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 중단권공(中壇勸供) 신중퇴공(神中退供) 관음시식/전시식(觀音施食/奠施食)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 등이 진행된다.

이중 상단권공(上壇勸供)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이유를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 시식(施食)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공양물을 대접하는 의식이다. 권공의식을 마치면 재를 치르는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게 되는 축원문이 낭독된다.

식당작법(食堂作法)은 영산재 의식 중 백미로 참석한 대중이 엄정한 절차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모든 공양물을 나누어 먹으며 고마움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봉송(奉送)은 의식에 청했던 대중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극락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산재란?

영산재(靈山齋)는 약 2600년 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중생들 앞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시는 그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대중들이 불법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등 뭇생명이 화합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장엄한 의식으로 펼쳐진다.

영산재는 의식절차에 음악 · 무용적 요소가 녹아 종합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음악 · 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 중에 범음(梵音)과 화청(和請) 등이 음악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교 음악에 맞춰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3현6각, 호적, 취타 등의 전통 악기가 동원된다.

영산재는 영산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영산재보존회에서 이러한 영산재 관련 의식을 보존 · 전승하고 있다.



▲시련



▲관욕



▲천수바라



▲도량게 나비무



▲봉송

“영산재 세계적 문화공연 만들 터”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제22회 영산재’를 주관한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전수교육조교)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첫 시연회 인만큼 더욱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키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유산의 집 ‘상상의 축제’ 초청 공연, 벨기에, 일본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캐나다 수류무용제 공연, 중국 종교국 초청 ‘쓰촨성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 시연 등 세계 각국에서 영산재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3월 11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G-20정상회담 성공개최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등재 기념 2010영산재를 봉행해 국가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의 종교적 숭고함을 알린 바 있다.

이날 영산재 시연에는 일본 교토 세심암, 감로사, 인도 등에서 온 스님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세계 각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일운 스님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이후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로 의미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산재를 알림으로서 영산재가 불교행사를 넘어 한국전통문화, 세계공연문화로 확고히 자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산재 및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Temple stay)프로그램 등도 마련하여 불교문화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일운스님은 “기존의 템플스테이 형식을 벗어나 영산재의 본 뜻과 현장감 넘치는 체험 및 한국전통문화와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였다.

향후 영산재 보존회는 영산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봉원사의 중.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설공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보통 3일간 진행되지만 짧은 영산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단도 만들 생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문화 예술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영산재의 다양한 예술성을 부각시켜 영산재가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워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C788-122010.6.219:34AM페이지1(1,1)

“중국이 선을 잃는다면 동이에게 묻게 될 것이다”

〈禪〉 〈東夷〉



35 성주산파의 중심지 성주사지

아무래도 허전했습니다. 짐작은 했더라도 막상 현장에 서니 짐작보다 큰 허전함이 몰려 왔습니다. 사방은 녹음이 짙어 푸르고 하늘도 구름 한 점 없는데, 순례자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성주사지.
사적 제307호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는 통일신라 말에 유행했던 선종 사찰의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지이다. 백제시대에는 전쟁에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오합사(烏合寺)라는 절이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에 김인문이 이 지역을 봉지로 받은 이후 신라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 후 당에서 귀국한 낭혜화상(朗慧和尙 800~880)이 왕자 흔(昕)의 요청으로 이곳에 중창한 것이 성주사이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2차에 걸쳐 크게 고쳐지었고, 조선시대에도 중창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절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현재의 중심 사역 외에도 주변에는 많은 건물자리가 있는데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울려 웅장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경내에는 최치원이 지은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를 비롯하여 오층석탑(보물 제19호), 금당 뒤편에 있는 3기의 삼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물 제20, 47호), 석등이 있고 발굴 결과 백제시대 와당을 비롯하여 소조불, 비석 파편, 석재 조각품이 발견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비석 머리와 받침이 있다.

이 지극히 간단한 안내문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늠하려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했지만, 성주(聖住)의 찬연함이 무너져 공적의 가르침을 펼치는 드넓은 옛 절터에서 구(求)하려는 것이 너무 많은 탓인가 봅니다. 정연하게 둘러쳐진 돌담을 두고 관람객들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그 정연한 돌담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려 텅 빈 절터를 둘러친 돌담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담이란 것이 안과 밖의 경계이지만, 그 본질조차 허물어야 옛 절터를 오늘의 도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도가 없는 곳으로의 ‘부도밭 기행’, 구산선문의 찬란했던 성역을 비롯한 옛 절터에는 부도는 없고 탑비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비라도 있어 선지식의 체향을 느낄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허전함의 파도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컸다고 전하는 성주사 옛터



석탑과 낭혜화상탑비만 남아 있는 성주사지.



고운 최치원의 비문이 빼곡하게 새겨진 낭혜화상 탑신.

낭혜화상 일대기 최치원의 명문장으로 남은 탑비 웅장
2000여 대중 머물던 구산선문 최대도량 발굴작업 한창

를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간 가득 건물이 들어 서 있다면 얼마나 웅장할까를. 그 부질없는 소망이 몇 기의 탑과 금당터, 불빛 사라진 석등과 못난이 불상만이 지키고 있는 절터가 주는 허허로움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고운 최치원의 명문장이 신라하대 최고의 비석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가 있어 성주사지는 여전히 성주(聖住)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최치원의 사산비문(四山碑文) 가운데 하나인 백월보광탑비에는 낭혜 화상의 생애와 당대의 여러 정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파손된 거북이는 한쪽만 남은 뿔로 허공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통통한 다섯 발톱에는 웅비의 힘이 서려있고 겹무늬로 표현된 육각의 귀갑문양은 귀한 분의 빗돌을 짊어진 영광을 말하는 듯합니다. 보호각 천장에 바짝 닿아 있는 이수도 화려하고 늠름한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산물인 남포오석으로 이루어진 몸돌은 그 크기가 신라하대의 것 가운데 가장 큽니다. 비의 전체 높이는 4.55m, 몸돌 높이는 2.63m, 폭 1.57m, 두께42Cm입니다. 유월의 오후 햇살이 비껴드는 비각 그늘에 앉아 비문의 해석본을 읽습니다.

“대사는 법호가 무염(無染)이며 원각조사(圓覺祖師)인 달마의 10세손이다. 속성은 김(金)씨로 무열왕이 8대조가 된다. <중략> 9세에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고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서는 9류가 비좁다 하면서 뜻을 불교에 입문하는 데 두었다.”

낭혜 화상은 나고 자란 곳에서의 신분적 정체성이 반듯합니다. 황손이라는 사실과 범상치 않은 태몽과 어릴 적의 행동거지가 이미 대덕으로서의 기틀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문장가 최치원이 그런 기미를 놓칠 리가 없었으니 비문은 5천 여 자에 이르는 것이겠습니다. 9류란 중국 한대(漢代) 학문의 9개 유파이니, 유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달마의 10세손이라 한 것은 달마의 법이 6조 혜능을 거쳐 남악회양, 마조도일, 마곡보철로 이어졌고 마곡보철로부터 직접 법을 이은 무염 화상이 선종의 적통임을 말한 것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스승의 가르침이 오늘에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밝습니다. 백월보광탑비에는 낭혜 화상과 임금의 대화가 몇 대목 등장하는데, 오늘날 정치현실에 일침이 되는 멘트도 따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낭혜 화상은 신라 제 48대 경문왕과 49대 헌강왕의 국사였습니다. 국사의 정치 코치를 읽어 봅니다.

“헌안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교서를 내려 도움의 말씀을 청하니 대사가 답하여 ‘주풍(周豊)이 노공(魯公)에 대하여 한 말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기(禮記)>에 드러나 있으니, 청컨대 좌우명을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신라 제 47대 헌안왕이 즉위 했을 때의 코치는 유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대의 큰스님이 불법(佛法)을 말하지 않은 것이 의외지만, 생각해 보면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시류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혜 화상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풍은 노나라 애공(哀公) 때의 은사(隱士)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예의(禮義), 충신(忠信), 성실(誠實)이 있어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훈(校訓) 같은 이 세 단어는 왕이 몸과 마음으로 유지해야 백성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니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능관인(能官人) 입니다.”

이 한마디는 경문왕의 대를 이은 헌강왕이 경문왕의 빈소에서 낭혜 화상에게 산사로 돌아가지 말고 곁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한데 대한 답입니다. “능력 있는 관리를 등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멘트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기에 코치도 여실하게 현실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능력 있는 자가 자리를 잘 지키는 세상이던가? 돌이켜 보고 살펴볼 일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부적절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으므로 생기는 부조리와 불협화음이 세상을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성주사의 전성기, 무염 화상의 시대에는 머무는 대중이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낭혜 화상의 제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니 그 가람의 규모나 화상의 덕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너르고 큰 도량에서 낭혜 화상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대덕의 대화가 언설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비문에 전하는 가르침의 대강을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사는 성품이 공손하고 삼가며 화합의 기운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중략> 빈객을 대함에는 일찍이 존비(尊卑)의 차별을 두지 않은 까닭에 <중략> 생도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이 마음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지, 어찌 도가 너희를 멀리 하겠는가. <중략>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교(敎)와 선(禪)이 같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종지(宗旨)를 보지 못하였다. <중략> 고요히 앉아 참선하여 마음의 근본을 쉬는 것이 성인에 가까울 진저.”

당대의 학식으로 따를 사람이 없었던 최치원은 낭혜 화상의 제자들이 기록한 행장을 바탕으로 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용한 이 가르침들은 평소 낭혜 화상이 가장 절실하게 제자들을 훈육했던 내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과 교를 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러한 분별심으로 수행의 물을 흐리는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비문에 전하는 낭혜 화상의 중국 구도기 역시 오늘날의 불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읽혀집니다. 낭혜 화상은 험한 뱃길을 이겨내고 중국에 도착하여 많은 절을 순례하며 ‘안살림’을 채웠습니다. 마조의 법을 이은 여만과 보철은 법을 전하며 “뒷날 중국이 선(禪)을 잃는다면 장차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이다”라 했습니다. ‘회창의 난’을 맞이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기까지 낭혜 화상의 중국 여정은 2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념으로 도를 구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주저 없이 보살행을 하여 ‘동방대보살’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구함이 지극한 사람은 베푸는 것도 지극한 법입니다.

성주사지에 도착했을 때의 허전함은 낭혜 화상의 비문을 읽으면서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터보다 마음에 새겨지는 가르침이 더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상당한 유물이 발굴된 데 이어 백제문화재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제8차 발굴 작업이 절의 남서쪽 영역에서 한창입니다. 발굴단이 캐 낼 유물의 유형성과 탑비에 아로새겨진 가르침의 무형성이 하나로 읽혀지고 느껴질 때 성주사지는 다시 성인이 머무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9>

습관 버리면 삼독 벗어난다

학승이 물었다.
"옛 거울은 닦지 않아도 비춥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전생은 인(因)이고 금생은 과(果)야."

問 古鏡不磨還照也無
師云 前生是因 今生是果

선사들의 대답은 항상 짧고 간단하다. 전후의 설명은 생략하고 본질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 여기서는 옛 거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옛 거울은 사람의 근본 심성(心性)을 말한다. 심성은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다. 사실 심성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옛 거울에 비유한다면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법이니까.

조주 스님은 심성을 옛 거울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존재의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옛 거울은 원래부터 닦지 않아도 밝다는 말이다. 그것은 원래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세 개의 칼(三刀)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빽빽하다."
학승이 물었다.
"떨어진 후에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밝고 밝다."

問 三刀未落時如何
師云 森森地 云 落後如何 師云 逈逈地

여기서 세 개의 칼(三刀)은 탐진치 삼독(三毒)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칼을 차고 있으면 인생은 복잡해진다. 마치 분노, 복수, 시기, 질투, 미움, 성공, 실패 등의 갖가지 난삽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에 대해 탐진치 삼독의 증세가 얼마나 가셔졌는지 그것을 자주 살펴봐야 한다. 설사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끊어졌다 해도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삼독이 끊고 끊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서지 않아도 또한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직 탐진치 삼독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도와는 더욱 요원할 뿐이다.

그런데 본래 사람의 마음은 삼독이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삼독에 중독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습관적으로 삼독심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습관을 제거하면 삼독에서 벗어난다. 따로 삼독을 벗어나는 고난도의 수행은 필요 없다.

학승이 물었다.
"삼계(三界)를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가두어 둘 수 없어."

問 如何是出三界底人
師云 籠罩不得

삼계(三界)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욕계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색계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무색계는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마음의 주의 주장이 남아 있는 세계이다. 삼계는 윤회하는 중생계이다. 도를 이루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즉, 욕망, 집착, 주장을 벗어나는 것이다.

거울은 원래부터 닦지 않아도 밝다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려선 안된다

삼계를 벗어난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그를 동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욕설이나 감언이설로도 그를 유혹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상으로도 그를 얽어맬 수 없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은 아직 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우두(牛頭) 법융(法融) 선사가 아직 4조 도신 선사를 친견하지 않았을 때에는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드렸는데, 친견하고 난 후에는 어찌하여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드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세간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의 차이이다."

問 牛頭未見四祖 百鳥銜花供養 見後爲什?百鳥不銜花供養
師云 應世不應世

우두 법융 스님은 출가해 49세가 되자 건강 우둔산 유서사(幽棲寺) 북쪽 바위 아래에 선실(禪室)을 짓고 살았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갖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올렸으므로 사방에 꽃이 쌓여있었다. 하루는 4조 도신 스님이 와서 법 일러줌을 받고 심요(心要)를 깨달았다. 이로부터 사방의 도속(道俗)들이 몰려와 교화를 받게 되니 문인이 100인이 넘었다.

그런데 도신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 법융 스님은 64세(652)에 건초사(建初寺)에서 죽었다. 후에 법융의 선은 우두선(牛頭禪)이라 해 크게 흥성했다.

마음에 신비로움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고, 고고한 수행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때가 묻은 것이다. 즉, 옳고 그른 것이 끊어지지 않은 유심(有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도 신선과 같은 경지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새들도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고 갖가지 꽃을 물고와 공양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선사의 법문을 듣고 한번 깨달아 마음에서 시비심이 끊어지고 평등심이 회복되면 마음은 투명해 마치 허공과 같이 말끔하게 된다. 그러면 새들은 절대 깨달은 자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대저 선사의 마음은 항상 무심(無心)이어서 귀신도 알아채지 못하는데 어찌 한낱 미물인 새들이 선사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러하니 꽃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 꽃이 없고 공양물이 없는 것은 그 선사의 마음이 그만큼 말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승이 물었다.
"백운이 자재로울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어찌 봄바람이 처처에 한가롭게 부는 것과 같겠는가?"

問 白雲自在時如何
師云 爭似春風處處閑

백운은 높은 하늘에서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떠다닌다. 그러나 춘풍은 지상에서 불면서 농부의 땀방울을 식혀준다. 백운이 이상이라면 춘풍은 현실이다. 백운처럼 자유자재한 것도 좋지만 자재로운 속에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춘풍이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자재한 백운에 대한 대구(對句)로서 춘풍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백운? 좋을씨구. 백운도 좋지만 춘풍도 또한 좋지 않는가"하는 간단한 대꾸로 보는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❶ 선어록의 출현

성전과도 같은 성격 지니고 있어

선어록(禪語錄)은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선전(禪典)·선적(禪籍)·선서(禪書) 등으로 불리면서 선에 대한 일반적인 전적을 가리킨다. 때문에 여기에는 선리(禪理) 및 사상류(思想類)·어록류(語錄類)·전등사서류(傳燈史書類)·청규류(淸規類)·공안집류(公案集類)·수필류(隨筆類) 및 잡류(雜類)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선자의 어록에 한정된다.

그 어록은 선자의 평소 설법을 제자 혹은 제삼자가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저술과 같은 일정한 목적 내지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 내지 직접 법문을 듣는 제자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적어도 법문을 하는 선자 자신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 밖에 선자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법문을 기록한 당사자는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남겨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개입돼 있다. 또한 많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중에 대한 홍보 내지 스승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禪宗畵.

어록이란 조사들의 설법과 제자들과의 문답 등을 다른 제자가 듣고 수시로 기록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연필을 들고 저술한 것과는 달리 반드시 조사의 설법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서 그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성전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간혹 제자가 기록한 것에 대해 조사 자신이 직접 서문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생전에 이뤄진 것도 있고 사후에 이뤄진 것도 있다. 따라서 어록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기록한 제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 내지는 보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법어(法語) 및 수시로 행해지는 제자들과의 문답상량(問答商量)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요약적인 성격이 강해 어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생애가 아울러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어록의 대부분은 특별히 어록 당사자의 일대기를 붙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어록이 어록으로서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법맥(法脈)과 종파(宗派) 내지는 당시의 사회여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의 문헌을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총괄한 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송고승전(宋高僧傳)>(988) 권20 황벽희운전(黃檗希運傳)의 말미에 '그 어록이 세상에 행해져 있다'라고 하고, 동 권11 조주종심전(趙州從諗傳)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한 이보다 오랜 <조당집(祖堂集)>(952)에는 행록(行錄)·행장(行狀)·별록(別錄) 등의 용어가 있지만 어록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어록이라 불린 것은 <송고승전> 이후의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수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문헌이 출현한 것은 마조도일(馬祖道一 : 708-788) 이후에 해당한다. 본디 그와 같은 특수한 설법양식을 지닌 상당(上堂)과 제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문헌이 출현한 것은 이 계통의 사람들에 의한 것인데, 종래의 불교학의 전통을 벗어나서 직접 민중 속에 파고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어느새 종래의 불교문헌의 영역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을 필요로 했다.

마조도일 이후의 선은 경론의 문헌적 연구를 떠나 일상의 언행에 즉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다시 종래의 경론과 같은 역할을 지닌 것으로 대체됐던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종래의 경전을 붓다의 어록으로까지 간주하게 됐다. 가령 <보림전(寶林傳)>(801)의 첫부분에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의 전문(全文)이 수록돼 있는 것은 그러한 경전관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불립문자라는 것은 단순한 경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주석적 연구에 대한 방법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미 달마는 자기의 입장을 '교에 의지해 종지를 깨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붓다의 경전을 인간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속고승전(續高僧傳)>(645)에 달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러한 인간언어를 파악함으로써 그 종지의 내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인(先人)의 어록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론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제일로 삼는다.



김호귀
동국대학교 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現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및 선학과 강사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묵조선 입문> <선문답의 세계> <조동선요> <게송으로 풀이한 금강경> <현대와 선> <선과 교의 통로> 등이 있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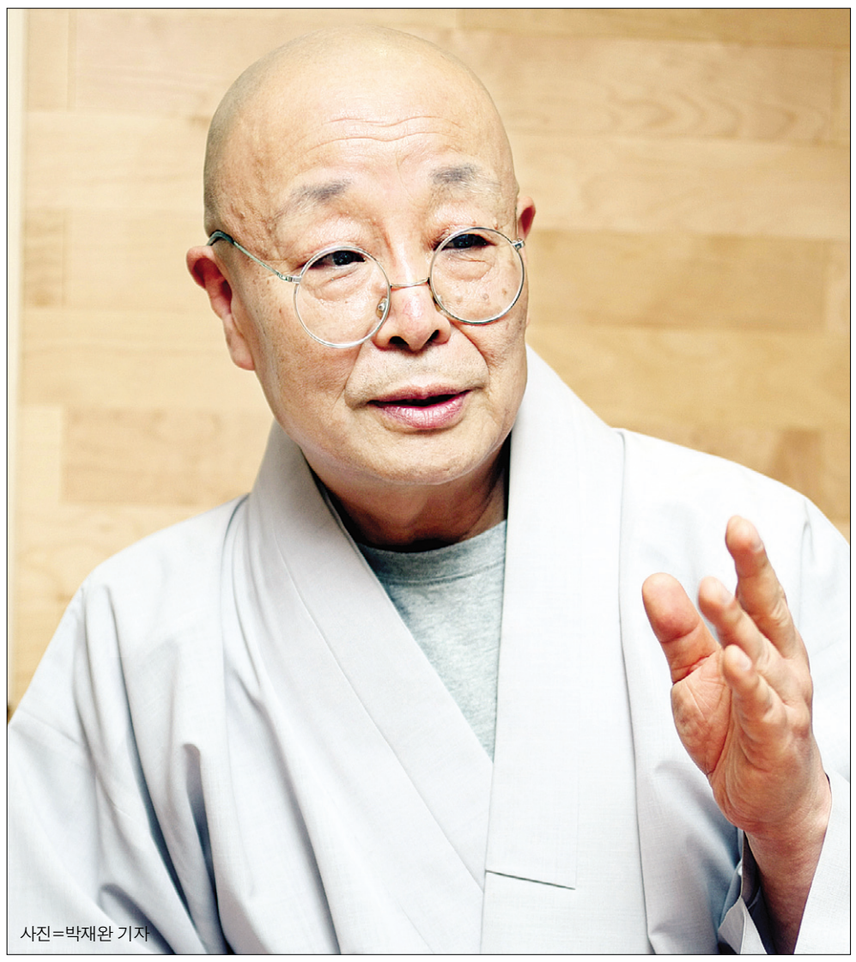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정혜사 주석 혜암 스님

경기도 포천 왕방산 자락의 조그만 포교당인 정혜사(禎慧寺)에 주석하고 계시다. 젊은 시절 춘천 성수고등학교, 부천 소명여고, 동국대 부속중,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병을 얻어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교육평론집 〈조국은 내 사랑〉(고려원 펴냄) 〈사랑의 학교〉(나라원)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리빙북스)와 교육을 주제로 한 소설 〈작은 천사들의 분노〉(나라원) 〈학교는 있다〉(〃)를 펴냈다.

혜암스님은 ‘선지식을 찾아서’ 코너의 취재에 손사래를 쳤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당신은 말석도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어쭙잖은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게 하며 원고를 건넸다. ‘섬기는 이의 해탈, 사혼(師魂)이 이끈 사율(師律)의 힘’이란 제목이 붙어있었다. 평소 생각했던 교육관과 교사상을 그려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사진=박재완 기자

‘말씀’으로 위장한 교사에 가슴으로 뉘우칠 제자 없어
교실은 마음 닦는 법당이요, 학생은 감동 주는 부처

가을에 접어든 어느 날. 희망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종례시간이었다. 돌연히 난처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선생님! 제 돈이 없어졌어요. 제 돈 10만원이 없어졌어요.”

정숙이가 손을 들고 안절부절하였다.

학급학생들의 시선이 울상이 된 그녀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눈이 휘둥그래져서 정숙이의 놀라는 표정을 바라보는 박 선생. 그는 학급담임을 처음 맡은 초년교사였다.

“무슨 돈이었어요?”

이렇게 묻는 박 선생은 곧 자신의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 무슨 돈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회의의 수렁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박 선생이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는 의심을 먼저 품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대부분 그런 상황의 끝은 학생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급적 문제의 근본부터 짚어보려고 한 것이었다.

“오늘 옷을 찾을 돈인데, 어떡해요.”

정숙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얼굴로 두리번거렸다. 박 선생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답을 알고 있지 못했다.

“혹시 누가 정숙이 돈 주은 학생 없나요?”

당황스러운 끝에 겨우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너무 너무 순진하시다.”

“저 나이에 왠일?”

“우리 형편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시구만.”

곧이어 한 남학생이 빈정대듯이 한마디를 내놓는다.

“선생님요, 돈을 주웠다면 쉽게 내놓겠어요?”

“무슨 뜻이죠?”

“저절로 굴러온 것이라면 횡재수인데 누가 그걸 포기하겠냐구요. 더구나 우리는 항상 용돈이 궁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가져가도 된다면 너무 한 겁니다. 혹시 주은 사람 있거든 돌려주세요. 지금 곤란하다면….”

박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말끝을 얼버무리려 했다. 이때 돈을 잃어버린 정숙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빈지갑을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종례시간 전까지 분명히 있었어요. 잠시 교실 밖엘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다구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구요. 도둑맞은 거라구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제 지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박 선생은 더욱 난처해진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이런 일이 평소에도 자주 생기나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난색이 된 박 선생은 답답하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돈을 잃어버린 정숙이는 드디어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는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모두 다른 데다 쓰고 핑계를 댄다고 야단을 치실 게 분명해요.”

박 선생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보이는 현실이 두려웠던 것일까? 자신의 고교시절이 언뜻 떠올랐다. 그때엔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문초하였다.

‘모두 일어나 손을 머리위에 얹고 책상 옆으로 정렬하라. 그리고 분단장들은 뒤에서부터 책상 속, 가방, 그리고 온 몸을 샅샅이 수색하라!’

이렇게 가방을 뒤지고 몸 구석구석을 더듬어 돈을 찾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다. 몸수색을 당하던 우리들은 모두 불쾌했었다. 결국 적발된 학우는 그 후 학교에선 볼 수 없었고.

학생들을 믿지 못해 그렇게 다짜고짜 몸수색을 집행했던 그 추억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순진한 마음에 개운치 않는 상처만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서로 믿을게 못 된다는 것만 가르쳤던 것이었다. 그런 모습은 교직을 독재자의 권위로 전락케 했고 범죄를 쫓아가는 형사로 변질케 했으며 결국은 타율도덕형의 인성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만 얻었을 뿐이었다. 성숙한 민주의식(자율도덕율)을 가르쳐야할 책임은 전문직책자인 교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당장 돈을 훔쳐간 학생을 찾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질 않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급박해졌다. 눈을 감은 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교실이 법당인 듯, 학생들이 부처인 듯하였을까? 그랬을 것이다. 그는 불제자였기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불성의 삶이 되기를 오로지 갈망해왔던 그였다. 학생들은 조용해졌고 놀라는 눈으로 그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잠시 교사의 전문성 진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문성은 일반성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책임이 따르는 성질의 것이며, 그 책임의 한계인 평가(척도)기준을 전문분야가 할 수 있는 최대반경 지점에 매김으로서 전문성의 본질적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특히 교직은 ‘인성교육’에 있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어지는 전문직이다. 이에 교사는 일반성과 다른 적극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가정’의 학부모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상의 역할 수행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한시가 바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며, ‘일반사회’라고 하는 삶의 현장 역시 인성교육의 비전문성 현상 자체이며 이미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오염이 녹아있는,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사회’를 향해 ‘인성교육’이라는 ‘선의지(善意志)의 전문교육’을 ‘함께 책임지자’는 교사의 요구는 교사의 근본 마음자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터득한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이 해야 할 합당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학생의 잘됨은 교사 덕분이고 잘못됨은 ‘가정탓, 사회탓’이라는 비열한 공식이 교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면 교사의 정체성은 단순지식만을 주입하는 지배적인 아만(我慢)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경제생활을 책임져 주기로 하고, 교사는 그들의 귀한 자녀들을 맡아 사회인성교육에 책임져 주기로 함으로서 교사에게 전문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사회계약적인 관계가 성립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인간의 도덕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볼 때 이성적 사회계약상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최소화 내지 전가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달고 자기합리화에 몰입하는 행위는 양심 도태행위이며 도덕적 변별력을 상실한 부도덕한 해법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내탓할 줄 모르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기합리화를 지저분하게 모색하고 강구하는 책임전가형 인격이 교사의 통념적 본래의지라고 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적 미학의 완성을 추구하는 공교육 본령에 대한 배반이다. 교사가 속마음에서 가정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위선자의 길로 일관하겠다면 학생이 배울 도덕성도 그와 같은 위선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활연(豁然)한 모습을 통해 지각변환(地覺變還)이 있기를 바란다면 나의 잘못된 판단일까? 아무튼 박 선생의 얘기를 계속해야겠다.

지금 학생들 앞에 고통스러운 그에게는 돈을 도둑맞은 학생을 동정함이 우선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그 돈은 얼마이든 당장에 대신하여도 될 것이었다.(그는 그날 정숙이에게 10만원을 주었다. 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뢰감이었다.) 그러나 도둑질한 제자의 ‘길 잃은 양심’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무거운 현실에 직면하여 온몸으로 떨고 있는 것이었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희망찬 준비라고 할 때 돈을 훔친 학생에게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장래에 대한 처연한 느낌과 선도 책임능력의 한계점을 느낀 당혹함이었다.

드디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는 검은 환영(幻影)이 난현한 공포가 되어 그를 일순간에 덮쳐왔다. 급작스럽게 닦친 위압감에 떨며 얼떨결에 마음속에서 외쳐본다.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된 가정교육 탓도 있고 나쁜 걸 많이 보여주는 사회환경 탓도 있어. 난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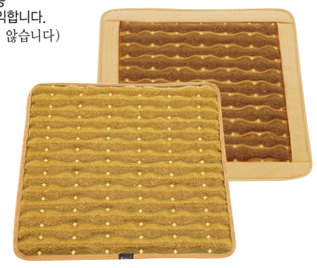
공포를 벗어나려 내면의 갈등에 부딪쳐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성(魔聲)은 온몸이 소스라치게 뇌리를 할퀴듯 덤벼든다.

“학교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데? 좋은 사람 만들어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보급형 정가
45,000원
(색상 : 황토색,취색)
고급신형 정가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정가 : 25,000원
(색상 : 황토색)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 합장주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맨

희담석의 생명의 에너지를
목걸이(팔찌,합장주)에 담았습니다.
목과 팔목이 뻐근하신 분들께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염주목걸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정가 ~~35,000원~~
⇨ 할인가 30,000원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교사는 학생 위한 인적환경

꿈을 키워주는 곳 아냐? 그런데 선생이란 것들이 너처럼 남의 탓하는 거 아주 전문적으로 좋아하더라구.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며 당신들 탓하며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었지만, 좋게 살고싶은 내 마음 알아주는 선생님이 혹시 계실까 찾아봤지만 제탓할 줄 모르는 꼬라지들 보면 다 틀렸어.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단말야. 닮고 싶은 선생이 없더라구. 그런데 뭐? 당신의 잘못이 없다구? 야, 이 비겁한 위선자야! 당신 직업이 선생 맞아? 나는 돈 내고 사람공부하는 학생이고, 당신은 돈 받고 사람 가르치는 선생직업이 분명하잖아!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가르쳐야 할 선생이라는 직업의 당신이 분명하잖아! 이런 좀도둑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소도둑이 되겠지. 그때에 가서 비로소 잘못 사는 내 인생에 대해 당신들 책임 없다는 뻔뻔한 전문직업의 양심에다가 잘못된 내 인생의 비수를 꽂아주고 말겠어."

분노하는 마성은 싸늘한 비웃음과 함께 증오를 토해내고 있었다. 이것은 철모르는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었다. 무서웠다. 이것은 자신의 위선을 향한 외침이었다. 마침내 위선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터진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울컥' 치밀어 오르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기에 학생들은 모두 놀랬다. 범접치 못할 기운이 서려있는 선생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지켜봤던 학생들이었다. 일반적인 현실감각으로서는 이해되는 않는 몽환적인 고백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으나 박선생은 도둑질한 이름 모를 제자 앞에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식없이 고백한 것이었다. 자신이야말로 그 학생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선생임을 확연히 인정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그 학생에 대한 속죄의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일그러진 제자의 환영이 이제 보니 바로 자신의 진실이었음을 바로 알아듣는 소리였다. 마치 돈오의 게송(偈頌)인 듯, 방만(放漫)해진 교단생활에서 무디어졌던 초발심이 깨어나듯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 소리였다. 그것은 곧 자신의 법성(法聲)이었다.

사람(인격)을 가르친다면서 '남탓'만 하는 위선자들에게 제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식을 전수하는 강사가 있을지언정 교사는 왜 있겠는가? 여기 한 학생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을 것인가? 그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가정에 더없이 소중한 자녀이며 귀한 인생이어야 할 한사람 비행학생의 어두운 미래징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교사가 지지 않고서로의 탓만으로 미룰 수는 없었기에 모두 혼자 짊어지려는 벅찬 양심이었으며 혼자 감당하기엔


사진=박재완 기자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다.

그의 한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발견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기다렸던 선생님을, 닮고 싶은 선생님을 발견했던 것이다.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용해하려는 그였다.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모은 두 손을 떼지 못하는 선생님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는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순진한 감정도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선생님 일어나셔요. 우리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3일 후에 그 수줍었던 돈이 선생님 앞으로 남몰래 찾아온 것도, 수업분위기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도, 학급성적이 오르고, 학급대항 합창경연대회에서도 2등씩이나 했다는 것…. 바로 감동받았던 학생들이 스스로 해낸 작품들이었다. 특히, 훔쳐갔던 돈이 선생님 앞으로 남몰래 찾아온 것에 대해 이 교사가 밝힘으로서 학생들의 선의지를 강화하는 본성교육(本性敎育)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훌륭한 학생의 거듭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도 뜨겁게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장래에 사회적 비리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한사람의 범죄성향이 지워졌으며 모두가 본성의 빛을 촉진하는 장면이었다. 이 학생은 훌륭히 변했고 변한 그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나 불경 등 말씀 따라 뉘우침은 그때그때의 카타르시스(Katharsis)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하지 않는다. 교사가 뉘우침을 보임으로써 만들어지는 창조현상이었던 것이다.

'말씀'으로 위장하는 교사 앞에 가슴으로 뉘우치는 제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인과법칙(因果法則)이 파동으로 전하는 호환작용(互還作用)이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편견도 필요 없게 되었고,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은 태양 같은 마음으로 밝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직책신실(職責信實)에서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윤리를 배우지 않았겠는가? 가정과 사회가 아무리 악스럽더라도 하루를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인격에서 주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이 사태를 남들은 어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므로 마땅히 교사가 1차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셈이었다. 직책에 대한 그러한 지조, 그러한 사랑이 일관하여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학생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변해갈 것이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지 않는가? 교사가 학생들의 현명한 친구처럼 좋은 인적환경이 되어 주면 학생들은 반드시 환경따라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그의 사고를 여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장차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대통령직을 맡든 그 무엇을 맡든 기만, 유혹과 태만에 넘어가지 않고 제 맡은 직책에 신실한 국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꿈으로 충만해 있었음과 다름 아니다.

그의 가시적(可視的) 동기부여는 학생들이 지니고 다니는 상한 감정들을 녹여 주었고 양심력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급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에게 교실은 마음을 닦는 법당이 되었고 학생은 감동을 주는 부처가 되었다. 이제 그는 가장 낮아진 섬기는 자로서 가장 넓어진 이해하는 자로서 가장 깊어진 사랑하는 자로서 환희로운 믿음의 교실역사를 지켜가게 될 것이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7. 중국 거사불교 대표 조박초 거사

조박초 거사(1907~2000)는 前 중국불교협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불교학자이며, 서예가, 정치가인 동시에 사회 활동가다. 중국불교협회장, 중국불학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수석, 중국적십자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거사는 평소 "공산주의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헤쳐 나가지만, 불교는 무엇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종교"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종교는 꿈과 계시 속에서 이뤄진 미신이지만 불교는 깬 꿈속에서 형성된 과학적, 철학적, 문학적인 종합예술종교"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종교가 아편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불교 역시 국가 관리 하에 놓여 무종교 훼불



중국 병령사(炳靈寺)의 조박초(趙朴初) 거사의 글씨.

中 문화정책 총괄 정무위원으로 활약… 중국 불교 중흥

넘어서지 못하지만, 문화재는 한번 사라지면 1만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조박초 거사의 뜻에 공감한 모 주석은 그를 정무위원으로 위촉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맡겼다. 지금의 아미산, 구화산, 보타산, 오대산 등 4대 성지를 중심으로 10만 사찰과 80만 스님이 대부분 조박초 거사에 의해 양성됐다. 또한 양자강 이북의 교종 · 밀종 사찰, 이남의 시바라밀을 가르쳐, 자진해서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세상의 고통을 덜었다.

특히 지금도 중국 불교는 노동불교로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풍습을 있어 청정한 농산물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회 전체에 그린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다. 이 정책들은 모두 조박초 거사가 고안한 것으로 그는 각 지역 경제의 모든 것이 사찰과 스님 중심이 되게 했다.

조 거사는 사찰의 중요시책을 신도들에게 맡기고 지친 노동자의 시대가 계속됐다. 중국불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8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때문이었다. 조박초 거사는 중국불교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등소평의 혁명동지로서 중국불교를 중흥시킨 공로자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 연구가 진행됐다. 조박초는 불교가 송명리학과 더불어 나중에 중국 고유 사상과도 흡수돼 고대 전통 철학의 일부로 발전됐다고 주장했다.

불상과 불구를 파괴하고 스님들을 죽이고 불경과 불서들을 보는 대로 태울 당시, 그는 모택동 사진을 이용해 불교문화재들을 지켰다. 조 거사는 모택동 사진 100만 장을 찍어 사찰 벽에 붙이고는 "우리의 지도자 모택동 주석 사진에 상해를 입히는 자는 상부에 고발해 직결처분하겠다"고 외쳤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100년을 유서 깊은 선종사찰이 복구되고, 불교대학과 선원이 문을 열었다.

중국 문화는 당 · 송대에 황금기를 형성했다. 당 · 송 8대가 가운데 이태백, 소동파가 그 대표이다. 이들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심한 역경 속에서 그 맥을 이어갔던 중국 불교였지만 군신이 선지식을 청법해 그 법문을 민정에 실천했으니 생활 불교의 시금석이 됐다. 천하 선종이 5가 7종으로 나눠 기염을 토했으나 대부분 지방장관이나 중앙 관리에 의해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고 겸양의 도를 실천하게 했다.

중국 불교는 학문과 수행을 함께 겸비해 정진해 나가며, 특정 이념의 정권과 관계없이 세계불교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유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르쳤으나 세속정치로써 탐관오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불교는 자비로써 부자들에게 보들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하게 했다. 정신적인 요양소로 자리 잡은 사찰에서 인민들은 인과를 철저히 믿고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 오늘날 중국의 존재가 불교 속에서 배태됐음을 자랑하게 됐다.

조박초 거사는 1980년대 중풍이 들어 몸이 쇠약해졌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받고 자신 또한 근신하며 전국 유명사찰을 다니면서 기도 참회해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조박초 거사의 글씨는 중국 여러 사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정무실천에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불교문화재를 창출하는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

조 거사는 한국에도 두 차례 왔다. 특히 일본 불교를 좋아했던 그는 90세 생일을 일본에서 보내기도 했다. 저서에는 <적수집(敵手集)> <편석집(片石集)> <불교상식문답> 등이 있다.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④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삼귀의는 세 가지 보배로운 곳에 돌아가 의지함을 말한다
색신에 귀의하는 것이 아닌 청정법신승가에 귀의하라

◆ 귀의자성삼신불(歸依自性三身佛)

"수행자들이여,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相)을 여읜 무상계(無相械)를 받되, 다 함께 혜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수행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불(三身佛)을 보게 하리라.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화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래원만보신불에 귀의합니다' 하라. 색신은 집과 같으므로 귀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의 세 몸은 자기의 법성(法性)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혹해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세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수행자들은 들을지니, 각기 자기의 색신에 잇는 자기의 법성이 삼신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청정해 만 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춰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홀연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 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해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 법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성품(自性)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나니, 모든 법에 자재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한다.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自歸依)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해 귀의함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천백억화신불이라고 하는가?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 있어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바로 스스로 변화하나니,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해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해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해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해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해 윗세계가 되고 우치함은 변화해 아랫 나라가 돼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해 자성화신불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원만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능히 천 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 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해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 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과보는 천 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신이라고 이름 한다. 법신을 좇아 생각함이 바로 화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바로 보신이며,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귀의라 이름 하나니,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이므로 귀의할 곳이 아니며, 다만 삼신을 깨달으면 바로 큰 뜻을 아느니라.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귀의했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발한다.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혜능을 따라 외울지니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수행자들이여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함은 혜능이 수행자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에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般若)의 지혜를 깨달아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한다.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다 함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함은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며,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함을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니, 바로 스스로 깨달아 불도를 이뤄 맹세코 서원을 행하는 것이다."

자성삼신불(自性三身佛)은 자성삼귀의(自性三歸依)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삼귀의는 세 가지 보배로운 곳에 돌아가 의지함을 말합니다. 첫째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요, 둘째가 깨달음의 내용이 담긴 경전을 말합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는 스님들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진리의 내용이 담긴 법은 정(正)이며 승려는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다운 귀의는 자성삼보(自性三寶)에 돌아가 의지함을 말합니다. 자성삼보의 첫째는 마음속의 깨달음에 귀의해 사됨과 미혹함을 여의어 적은 것으로서 민족을 삼으며 능히 재색(財色)에 대한 집착심을 말끔히 벗어나 막힘과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바른 진리에 귀의해, 생각이 맑아 사된 견해가 없으며 나와 남을 분별해 차별하지 않으며, 소유욕을 앞세우거나 애욕으로 인한 타는 목마름이 없게 해 드러난 진리와 둘이 아닌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셋째는 마음의 청정함에 귀의함이니, 밖으로는 정계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는 헐떡임이 없어, 번뇌 망상의 찌꺼기도 남아 있지 않은, 물듦과 집착심을 여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삼귀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수직이 아닌 수평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약속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종교입니다. 하여, 불교에는 메시아가 있을 수 없고 주입식의 가르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스승일 뿐이고 불교도는 그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佛) · 법(法) ·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 한다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뒷날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현담을 읽다가 귀경삼보(歸敬三寶)라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귀의삼보(歸依三寶)가 아니라 귀경삼보라는 말은 의지할 의(依)자가 공경할 경(敬)자로 바뀌어 있는 부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주지삼보(住持三寶)와 동체삼보(同體三寶)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쇠를 녹여 철불을 만들고 나무를 다듬어 목불을 만들며 종이로는 지불을, 흙으로는 토불을 만들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주지삼보라고 합니다. 별상삼보(別相三寶)는 천년된 나무와 바위와 흙, 그대로의 모습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열린신앙, 열린 마음의 법당 아닌 곳 없고 삼라만상 그대로가 불보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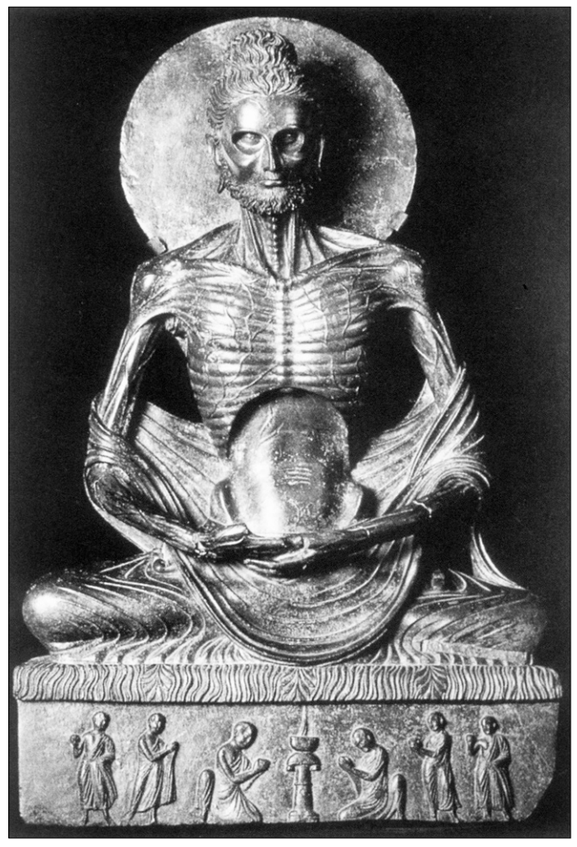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동체삼보입니다. 불 · 법 · 승 삼보와 극락정토가 멀리 있는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곳 그대로가 삼보가 깃들어 머무는 곳이요, 내 몸 안에 정토의 안락과 평화, 자유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널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의 고리, 관습의 벽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혜능 이전에는 자성삼귀의가 없었습니다. 혜능에 의해 삼귀의해야 할 부처님과 진리의 가르침이 그리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인 승가가 내 몸 안에 청정법신으로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버렸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진공(眞空)에서 만이 묘유(妙有)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사찰에 비구니 셋이 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오로지 참선만을 해온 중진 비구니 스님들이었습니다. 내가 세 분의 스님께 물었습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중 진공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有)인지 만 답변해 주시지요"라고 묻자, 비구니 스님 세분은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비어 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비어 있습니다."

붓다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은 이제 누구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는 '내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등불로서 스승을 삼고, 마음의 등불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것이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동체삼보(同體三寶)는 결국 내 주변에 머무는 것들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주변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어는 곳에 머물고 있더라도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곧 중심이다' 라는 것이 동체삼보입니다.



석존육년고행상(釋尊六年苦行像)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봉안.

그래서 육조 스님은 색신에 귀의하는 것이 아닌, 청정법신승가에 귀의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는 것은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만 가지 법이 마음 작용으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맑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육문(六門)에서 일어나는 육진(六塵)의 작용에 의해 의식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청정하다보니 사람은 누구나 궤도를 이탈하고 헐떡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청정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만보신불(圓滿報身佛)은 한 등불의 빛이 천 년된 어둠을 밝히듯이 한 지혜가 만 년 된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집착입니다.

이미 흘러간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뚜렷하게 밝혀 성품을 꿰뚫어 보면 선악에 물들지 않은 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극락도 필요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신라의 승려로 당나라로 가는 유학길 중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괸 물이었음을 알고 대오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청정법신이고, 원만보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따로 구하지 말며, 마음이 열려있으면 곧 자신이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 있습니다. 마룬캬라고 불리는 청년이 하루는 석가를 찾아와 이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화살이 어떤 사람의 몸에 박혔다고 하자. 그럴 경우 독화살을 빨리 제고하고 치료 하는게 좋겠는가? 아니면 독화살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누가 화살을 만들었으며 누가 화살을 쏘았으며 화살을 쏜 이유는 무엇이며, 화살촉에는 무슨 독이 묻어 있는지를 따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독화살이 박힌 순간 바로 빼내 치유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14. 도깨비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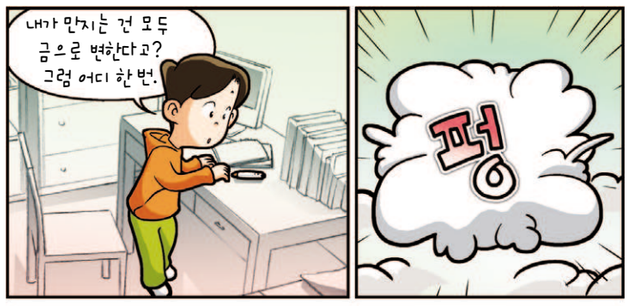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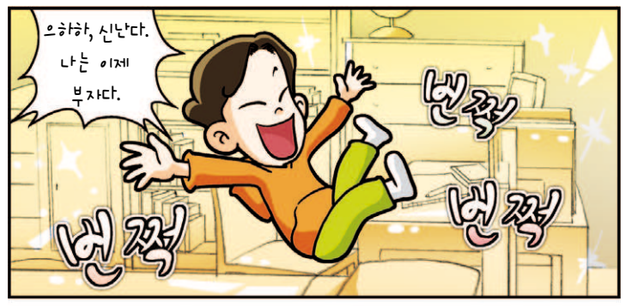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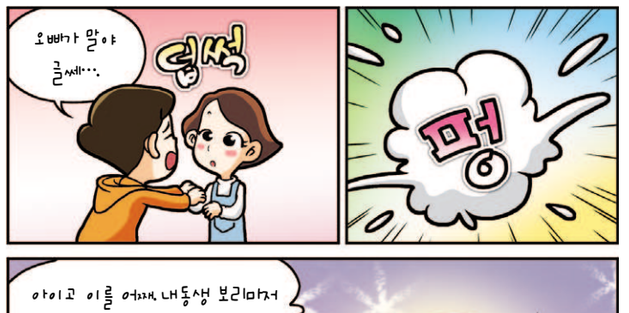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삼계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법구경





귀사와 귀하의 홍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비용 · 고효율" 홍보대행 서비스,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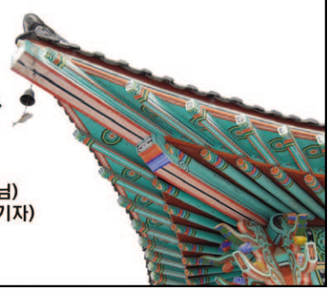
DAUM NAVER NATE YAHOO! KOREA Paran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위한 취재 및 보도자료 서비스입니다.
대성사의 홍보대행 서비스는 10년 노하우의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언론사를 통해 귀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보도자료 원문서비스: 보도자료 원문이 국내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보도자료 작성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사화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후 해당기사를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보도자료 및 취재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야후·파란)과
불교신문 오프라인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신문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청주불교방송,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충청매일,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충청일보, 한국불교신문,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HCN충북방송, 뉴스천지, 불교저널, 금강불교신문, 주간불교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E-mail : ksson108@hanmail.net

본사 대성사 ☎ 010-9522-8453 (혜철 스님)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충북지사 ☎ 043-732-5560
대전지사 ☎ 042-223-8214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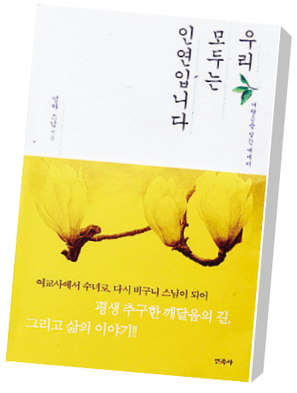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녀에서 비구니로 인생 역정 담아

일아 스님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서 삶과 구도 여정 오롯이 기록



여교사에서 수녀로, 다시 비구니스님이 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일아 스님이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이후 2년 만에 첫 산문집을 냈다.

최근 펴낸 일아 스님의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에는 스님의 삶과 구도 여정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 수행, 학문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대학 시절 일아 스님은 영화와 음악, 문학과 여행에 누구보다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완전한 인간'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수도자의 길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수도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에 입회한 스님은 가톨릭 신학원을 졸업하고 수녀가 됐다.

6~7년을 수녀로 살던 어느 날, 스님은 "가톨릭이 매력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수행을 계속하기에는 자신의 적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녀복을 벗었다.

딱히 갈 데도 없었던 일아 스님은 <무소유>등의 책으로 당시 수녀원에서 인기 '짱'이었던 법정 스님을 떠올리고 스님을 찾아 무작정 송광사 불일암으로 향했다.

법정 스님을 만난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법정 스님의 소개로 조계종 비구니 특별선원인 석남사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한 일아 스님은 '부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미얀마와 태국의 명상센터에서 치열한 수행을 한다.

그 뒤 스님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이어 웨스트대학교 비교종교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후 LA 로메리카 불교대학의 교수, LA 갈릴리 신학대학원 강사를 지냈다.

그리고 2008년, 일아 스님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삶이 생생히 담겨있는 초기 경전에서 가르침과 계율, 자비의 실천, 수행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을 펴냈다.

일아 스님은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중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수많은 인연을 통해 진솔하게 들려준다.

책은 1~4장으로 구성돼 초기경전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17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이야기들, 스님의 출가 수도 생활을 기점으로 한 삶과 수행, 학문 이야기들이 담겼다.

홀로 남겨진 아기 코끼리를 돌보는 코끼리 고아원 원장의 이야기, 거리를 청소하는 80이 넘은 백인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느낀 이야기, 그랜드캐니언을 관리하는 인디언과의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읽어볼 수 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종교적 성향을 심어준 성자 예수님과 부처님, 수도 생활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 준 수녀원과 수련장님, 불교와의 만남을 이어준 법정 스님, 큰 스승 인홍 스님, 은사인 법희 스님 그리고 스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맺은 인연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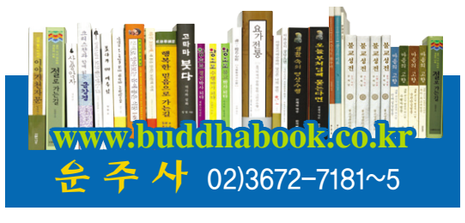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 일아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4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5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6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7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8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9	초기불교 VS 선불교	방경일	운주사
10	경허선사 일대기	현담	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수하고 번뇌 없는 삶에 대한 동경서 출가"

일아 스님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스님과 6월 8일 e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수녀에서 스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 출가한 동기를 말해야 할 것 같다. 출가한 동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고아하고 숭고하고 드높은 이상세계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런데 내가 수녀원으로 먼저 간 것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대학에서 기독교와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어느 하나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타입이었던 나는 쉽게 말하면 이것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수녀가 돼 계성여중으로 소임을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담임을 맡고부터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과 같은 생활, 담임이 해야 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잡무와, 반끼리 무엇이든지 경쟁을 해야 하는 정신적인 압박감 등, 고뇌가 시작됐다. 나는 좀 더 내 자신을 관조하고 내 안에 침잠하고 좀 더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동경했고 번뇌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법정 스님이 어떤 말을 해 주었는가? 법정 스님이 써 주신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법정 스님을 뵙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나는 수녀원에서 나왔는데 나를 잘 지도해 주실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 절로 보내 달라고" 말이다. 그때 법정 스님은 "석남사 인홍 스님은 비구니계의 아주 훌륭한 스님이시고 더구나 석남사는 가장 엄격하게 수행자를 길러내는 훌륭한 곳"이라며 "석남사 인홍 스님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수행자로서의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스님께 이렇게 다시 여쭈었다. "스님들이 절을 천배, 만배 이렇게 많이 한다고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절에 가면 이렇게 절을 많이 해야 되나요? 절은 무슨 이유로 하나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불교의 교리를 말씀하지도 않았고, 절하는 공덕을 거창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그때 생각에 참 싱거운 대답을 했다. "아, 그것은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 보다,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절을 해 보면 차차 알아질 것이라는 지혜의 대답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편지는 법정 스님께서 봉해 주셨다. 스님이 편지를 쓰시기 전에 내가 수녀원에서 나왔다고 쓰지 말라고 당부도 드렸다. 나는 스님들에게 선입견을 주기 싫었고 남과 똑 같이 행자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었다. 그래서 석남사 인홍 스님을 뵙고 편지를 드렸다. 인홍 스님과 옆에 있던 스님들도 편지를 읽고 아주 기뻐하셨다. 그리고 다과를 차려 주시면서 출가를 허락하셨다.

–수녀원 생활과 비구니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근본적인 수도생활의 지향점이 같다. 가톨릭에서는 세 가지 서원을 한다. 정결(淨潔)·청빈(淸貧)·순명(順命) 중에서 독신생활인 정결은 똑같다.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스님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두 종교는 서로 크게 공감한다. 청빈도 마찬가지다. 청빈에 대해서는 가톨릭이나 불교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청빈을 철저한 수행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런 큰 공통점 외에도 수도 생활 자체의 공동생활에도 공통적인 점이 많다. 그래서 처음 행자나 비구니 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순명은 다르다. 가톨릭은 장상(어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자신의 마음대로 가서 소임을 살거나 마음대로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는 정해진 계율의 질서를 지키면서, 한국이나 외국이나 어디에서든 수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수행에 대한 책임과 자유의 삶이다.

또 큰 다른 점은 가톨릭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교는 자기 개인의 깨달음이나 수행에 큰 비중을 둔다. 그러니 삶의 중심은 바로 '나'다.

–불교 경전인 빠알리 경전의 중요성

불교의 근본 뿌리인 초기 경전인 빠알리 경전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빠알리 경전은 직제자들의 구전을 집대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중요한 교리를 비롯해 마음을 흔드는 감명 깊은 수많은 가르침들,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지닌 부처님의 삶과 수행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또한 빠알리 경전은 제자들의 다툼으로 고뇌하는 부처님의 진솔한 모습,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연민 등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경전이다.

빠알리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간단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고, 들어서 즉시 이해가 되는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 내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 인격, 성품, 수행, 인간관계, 사유방향, 바른 견해 등 만나기 어려운 빼어난 성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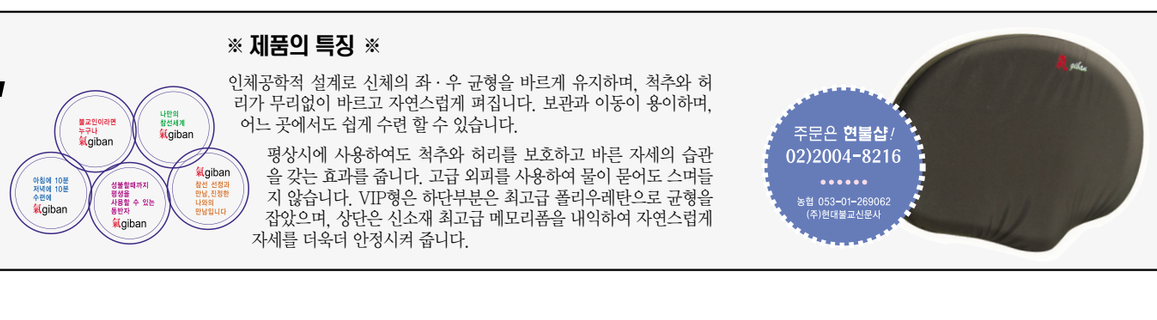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포부

지금 <이상세계는 어디에> 라는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이 책에는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의 생각들을 담았다. 내가 빠알리 경전을 수 없이 읽고 낸 결론은 공부든 수행이든 자기에서 끝나서는 바른 공부나 수행이 아니란 것이었다. 공부나 수행의 결실을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과 사진을 많이 실었다. 특이한 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책은 내가 기독교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바를 다루게 될 것 같다. 기독교에서 불교를 폄하하는 말인 '우상'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 현재 한국의 사전들에 나온 우상에 대한 설명이 모두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리해 사전들을 시정하고 불자들뿐 아니라 모든 이의 인식을 바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재가 불자들을 위한 한마디

내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한 결과 부처님 경전과 불교 수행이 나의 인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 훌륭한 성인은 많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선택한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평화와 행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불교에도 산타클로스 있어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10대와 통하는 불교’



불교계는 현재 청소년 불자 감소로 그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다. 젊은 불자들이 없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은 좀처럼 넓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통의 부재다. 불교는 소통이다. 몸과 마음, 사람과 사람,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연기설이며 불교의 핵심이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방법의 눈높이가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불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과 설명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불교관련 책들이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내용이었다면 <10대와 통하는 불교>는 바로 청소년의 눈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학생 때 해인사 백련암에서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에게 ‘일각’(一角)이란 법명을 받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시작한 저자 강호진 씨는 성철 스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어린 청년 불자의 감성을 이 책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책은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난 사람, 세기의 라이벌 원효 vs 의상, 달라이 라마, 환생하는 사람들 등 불교와 관련된 14가지 주제와 16가지 질문을 통해 불교의 기원, 불교문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각 단락의 말미에는 저자가 불교를 접하며 느꼈을 법한 질문들이 모여 있다.

“불교에도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가 있나요?” “스님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나요?” “불교신자들도 일요일마다 절에 가야 하나요?” 등등 불교와 관련해 듣거나 절에서 스님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본문 중에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 간 남자’라는 부분이 있다.

저자는 거짓말을 많이 한 어머니가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런 대아비지옥(大阿鼻地獄)에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에게 간청해 석장과 가사, 발우를 받아 지옥문을 깨고 어머니를 만났다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너무 죄가 많아서 구출할 수 없음을 알고도 석가모니가 알려준 대로 각종 공덕을 베풀어서 어머니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목련존자의 효심입니다.”

이처럼 책이 나눠 논 14가지 주제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배워야 할 삶의 철학이 불교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대와 통하는 불교>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양도서라 불릴 만하다.

실상사 도법 스님은 책 시작에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불교를 궁금해 하는 어른들도 술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듯하다”며 추천했다.

10대와 통하는 불교 | 강호진 지음 | 철수와영희 펴냄 | 1만 2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커피 한 잔에 담긴 깨침 대화체로 풀어

성재헌 소설 ‘커피와 달마’ 현대인이 만나는 수행의 길



“내 이제 가면 자네가 사다 주던 커피가 그리워져서 어쩌누. 커피를 달여 주는 집에 가거든 내 말 좀 꼭 전해 주게. 이 늙은 중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맛보여 줬으니 성불하실 거라고 말일세”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이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는 계기는 어느 순간 불시에 찾아오곤 한다. 이 책은 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를 부정하던 주인공이 달마암의 노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 사장으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커피를 마시던 주인공은 우연히 찾은 조용한 산자락의 달마암에서 스님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불멸하는 영혼도, 보다 나은 내세도 기약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교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인공의 질문에 대해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야”라고 답하며 불교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커피와 달마>의 재미는 주인공이 변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이 주인공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번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우리에게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물질적 풍요가 참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찔한 속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사람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자네는 행복하지 못하겠구먼. 언제쯤 자네 뜻대로 모든 일들이 굴러가고, 남들보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책 속에서 달마암 노스님이 주인공에게 던진 질문은 마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건넨 말 같다. 우리는 어쩌면 물질적 풍요란 거짓된 행복 속에 지금 이순간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책의 후미에 제시된다. 스님은 주인공에게 참선을 알려주고, 주인공은 철야정진도 불사한다. 하지만 스님은 비바람을 맞으며 높은 바위에 앉아 버티고, 일부러 차가운 물속이나 뙤약볕 아래에서 참선을 하며 버티는 행위는 관심을 끌기 위한 서커스일 뿐 그 본질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어 부처님도 고행은 무익한 행동임을 깨닫고 배격하셨다며 참선의 본질에 대해 친절히 얘기해 준다.

스님은 주인공에게 선에 대해 물어본다. “즐거운 여행이요” 주인공의 대답에 스님은 “1박 2일 좌선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거웠나?”고 물어보며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한다. 스님은 어떤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선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한다.

“좌선을 하기 때문에 상념이 끓어 오르는 것이 아니야. 좌선을 통해 비로소 그 것을 감지하게 되지, 자네는 상념에서 해방되는 첫 걸음을 뗀 거야.”

사람들은 참선을 단순히 스님들과 같은 수도자들이 득도를 위해 행하는 특별한 행위로 오해하곤 한다. 그렇기에 ‘무아지경’ ‘무념무상’ 등 수식어에 집착하고, 결국 실천해 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 책은 스님이 커피를 마시고, 일반인들이 참선을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며 참선이란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커피와 달마 | 성재헌 지음 | 한걸음더 펴냄 | 1만 2000원

노덕현 기자

못말리는 홍서원 스님들의 행복가꾸기

정봉 스님 법문 팔정도에 맞춰 새 구성



2002년부터 지리산 작은 마을인 맥전마을에 토담굴인 홍서원을 짓고 수행하는 세 스님이 있었다. 정봉 스님, 천진 스님, 현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들은 날마다 새벽 2시30분에 일어나 예불하고 산새, 나무, 꽃, 바람과 어울리면서 곤충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런 스님들의 삶이 담긴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가 2009년 6월 출간되며 많은 이들이 지리산 홍서원을 찾게 된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는 당시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를 읽고 지리산 홍서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풀어놓은 가지각색의 사연과 그에 맞는 법문을 모은 것이다.

법문은 정봉 스님이 설한 것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것을 천진, 현현 스님이 사성제와 팔정도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기도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직 죽음과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붙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세상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죠. 대학은 실력대로 가는 것이 맞지. 기도 한다고 다 대학 가면 되겠읍니까? 거지 같이 구걸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99p)

스님들은 이 책을 통해서 물질을 떠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책의 표지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려있는 사진에는 하루 한끼만 먹으며 계율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녹아 있다.

‘누구 없느냐고 묻지 말고 사람을 키워라’ 같은 장에는 조계종단의 여른 스님들을 향한 쓴소리도 담았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행복이야기 | 천진, 현현 엮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 2800원

노덕현기자



‘삼국유사’ 산실 인각사의 어제와 오늘

이종문 교수의 인각사 답사기

군위 인각사는 <삼국유사>가 태어난 곳이다. 고려 후기 고승 일연 스님(1206~1289)은 풍수상 기린의 뿔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해 이름 붙여진 이 절에서 생애 마지막 5년을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했다.

신라시대 지방 사찰로는 유례없는 큰 규모였던 인각사는 조선시대로 접어들며 쇠퇴했고,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방화로 소실됐다. 지금의 인각사는 전각다운 전각조차 없는 작은 사찰에 불과하지만 민족의 고전을 낳은 성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종문 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가 쓴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은 인각사 답사기다. 인각사에는 여러 사연이 담긴 일연의 비석과 부도가 남아 있으며, 해마다 ‘삼국유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각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그 진면모를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볼 것 하나 없는 이 절을 이 교수는 35년 동안 100번 넘게 찾았다. 고교시절부터 <삼국유사>에 빠져든 그는 인각사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가슴이 아파, 가고 또 갔다고 한다. 인각사 창건부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원 이야기까지 두루담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인각사에 대한 애정의 눈길을 따라 부근 벼랑인 학소대부터 돌부처, 비각에 파손된 채 갇혀있는 인각사비, 일연 스님의 부도 등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 | 이종문 지음 | 글항아리 펴냄 | 1만9800원

노덕현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62 65,000원


JD121-1 (6.4mm) 68,2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있습니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저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소신공양

운무가 용틀임을 하며 강으로부터 올라와 시목산의 허리를 감돌아 흐른다. 분분히 퍼지는 아침 햇살에 숲은 두런거리고 키 낮은 둥굴레 덩쿨의 잎새들은 큰 나무 사이에서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다. 아침 산책길은 늘 향기가 난다. 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저마다 야릇한 향기와 소리들을 토해 내는 것이다. 문수 스님은 싱그러운 공기를 맘껏 마실 량으로 심호흡을 하였다. 사분사분 옮겨 놓는 스님의 발자국에서 작은 돌맹이 하나가 또르르 구른다. 아주 작은 돌맹이는 “나도 여기 있어요!”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다. 스님은 고개를 돌려서 돌맹이가 구르다가 멈추는 것까지 보아줬다. “안녕, 좋은 곳으로 이사 했네요!” 스님은 구부러진 깊숲 시누대 밑에 안착한 돌맹이에게 다정한 시선으로 인사를 한다. 문수 스님은 자연 한 자락을 볼 때마다 부처님 품안에서 노니는 행복감에 자신도 모르게 출가시를 읊조리곤 했다.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어니 대장부 어디간들 밥 세 그릇 걱정하랴. 오호와 사해에서 자유로운 손님되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대로 노닐세라!”

반시간쯤 걸어 오르면 소나무 한그루가 넉넉한 가지를 뻗어 늠름하게 서 있는 널바위에 닿는다. 널바위 위에서 멀리 보이는 강줄기의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스님의 취미이다. 어떤 때는 소나무 그늘에 들어가 소나무 가지가 드리워 멋진 구도를 만들어 준 허공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소나무 그늘에서 소나무의 굴곡 많은 등걸을 어루만지며 함께 늙어가는 동지애를 느끼는 때도 있지만 스님은 곧 그 생각을 거두곤 했다. 자신은 생의 길이에 있어서 소나무에 어림도 없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몸을 바꿔야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 강과 들에는 한 해살이서부터 여러해살이, 수 십해 살이, 수 백해 살이, 아니 수 만해 살이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 있다. 산과 강과 들판은 물론 바윗장 자체도 저마다 생명의 길이를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깊이 흐르며 존재하고 있다. 유한한 것들은 보다 유장한 것에 기대서 살고 있다. 산과 강과 허공이 뭇 생명들에게 편안한 것은 아마도 저들의 유장함에 저마다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수 스님은 늘 산천을 고마워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계 소음이 들리더니 강자락이 허옇게 속살을 드러내었다. 널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던 평화로운 광경은 토목공사 차량들의 분주한 오감으로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었다. 강가에 푸르던 초원도 군데군데 끊어지고 한쪽으로는 모래언덕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다. 산책에서 돌아 온 스님은 아래 절로 향하였다. 스님은 도반이 주지로 있는 절에 딸린 토굴에 있으면서 아침공양과 사시공양을 절로 내려가서 하였다. 스님은 벌써 1년 가까이 오후불식을 하고 있었다.

“기여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나 봅니다.”

등각 스님을 보자 문수 스님이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쯧.쯧.” 등각 스님이 말끝을 흐린다.

“저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음–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강물이 잘 흐르게 한다나 원.”

잔뜩 못마땅한 표정의 두 스님은 곧 말이 없다. 환경단체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4대강을 파헤쳐서 운하를 만들면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은 병들고 물의 흐름은 오히려 느려져서 물은 곧 썩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자연은 자연대로 흐르게 둘 일이요 인간이 지나치게 간섭해서 강줄기를 함부로 끊고 억지로 잇는 것은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와 속 깊은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빠른 시간안에 반드시 4대강을 요절을 내야 할 듯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강을 파헤치고 있다. 문수 스님은 토굴로 돌아와 가만히 정좌하고 앉았다. 앞마당 화단에는 모란꽃잎이 함박만하게 피어나고 산새들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목련나무에 날아들고 있었다. 문수 스님은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면밀히 듣고 있으면서 일념삼매에 들었다. 드디어 강바닥을 파헤치는 굴삭기의 소음이 들판을 건너 산허리를 뚫고 스님의 좌복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스님은 일어나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두루고 토굴방에 모신 불상을 향해 목탁을 들고 염불을 시작했다. 의상 대사의 법성게였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法性圓融無異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絶一體 證知所知非餘境, 모든 자연의 존재와 양상은 서로 융합하고 있어서 달라 보이지만 두 모양이 아닐세. 모든 자연의 존재와 양상은 본래로 고요하여 시시각각 변하나 근본은 움직임이 없을세. 이름도 없고 모양도 결정되어 있지 않기에 시시분별과 모든 언상을 초월해 있으며 일찍이 본질을 깨달은 이 만이 그 경지를 알 뿐, 범부들이 알 수 없는 지극한 경지라네)”

산과 강과 허공이 뭇생명들에게 편안한 것은 아마도 저들의 유장함에 저마다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것…

문수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평화로웠던 낙동강의 유유한 흐름과 그 정경을 떠올리면서 염불삼매에 빠져들었다. 촛불집회와 수많은 반대행위들은 시나브로 잦아들고 있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하는 듯한 임기응변에 속고 멍들어 차츰 저들의 집요에 지쳐가고 있었다. 겉으로 4대강운하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더 분주히 계속하는 정부의 이중성은 왠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상 같아서 문수 스님은 소름이 돋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강은 강의 기운으로 그 흐름이 잘 흐르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될 일이요 강바닥을 파헤치고 갑문을 설치하고 강가를 시멘트으로 발라서는 강의 생명력은 유실될 것이 명약관야하다. 강물의 흐름을 더 원활히 하는 정비사업 정도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일의 심각성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운하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성에 있는 것이다. 문수 스님은 유구한 겨레의 역사를 더듬어 보며 겨우 5년의 기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한 정권이 자손만대 길이 보존되어야 할 조국의 강산을 함부로 유린하는데 분개하고 있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문수 스님은 정부의 4대강 만행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 점점 몸서리 치고 있었다. 뭇 별이 쏟아진 맑고 고요한 밤, 문수 스님은 손전등을 들고 산허리로 난 산책길을 따라 널바위 위로 올라갔다. 적요 속에서 산골짜기는 향기롭고 달빛의 여명으로 모든 존재는 낮의 고통을 잊고 행복해 보였다. 멀리 강을 내려다보니 달빛 속에서 강물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강가에서 수달이 사라진지는 오래되었고 공사의 후유증으로 물고기들과 새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강은 생명이 숨 쉬는 강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음 없는 달빛만이 파헤쳐진 모레더미와 움푹 패인 강바닥을 아름답게 비쳐주고 있었다. 문득, 밤하늘에 유성 하나가 노오란 금을 그으며 건너편 산등성이로 떨어진다. 순간 문수 스님은 합장을 하고 기도했다. “저 강과 산자락과 뭇생명의 흐름을 지켜주십시오!” 스님은 간절했다.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기에 자연의 아픔은 그대로 문수 스님 자신의 아픔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문수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수많은 겨레혼의 얼굴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운집해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겨레혼의 주위로는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과 크고 작은 동식물들도 애절한 모습으로 읍을 하고 있었다. 환상이었다. 문수 스님은 가슴이 막막했다. 어떻게 이 뜻을 전할까? 겨레의 혼이 모두 나서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광경을 어떻게 정부와 국민에게 전할까? 문득 문수 스님은 에밀레종이 생각났다. 에밀레종소리를 맑고 깊게 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소신공양 하였던 생명공양의 의미에 생각이 미쳤다. 문수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천에 합장배례하고 토굴로 돌아왔다. 이미 가장 강력한 언어를 생각해 낸 스님은 다른 사람을 선동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겨레의 혼과 수많은 생명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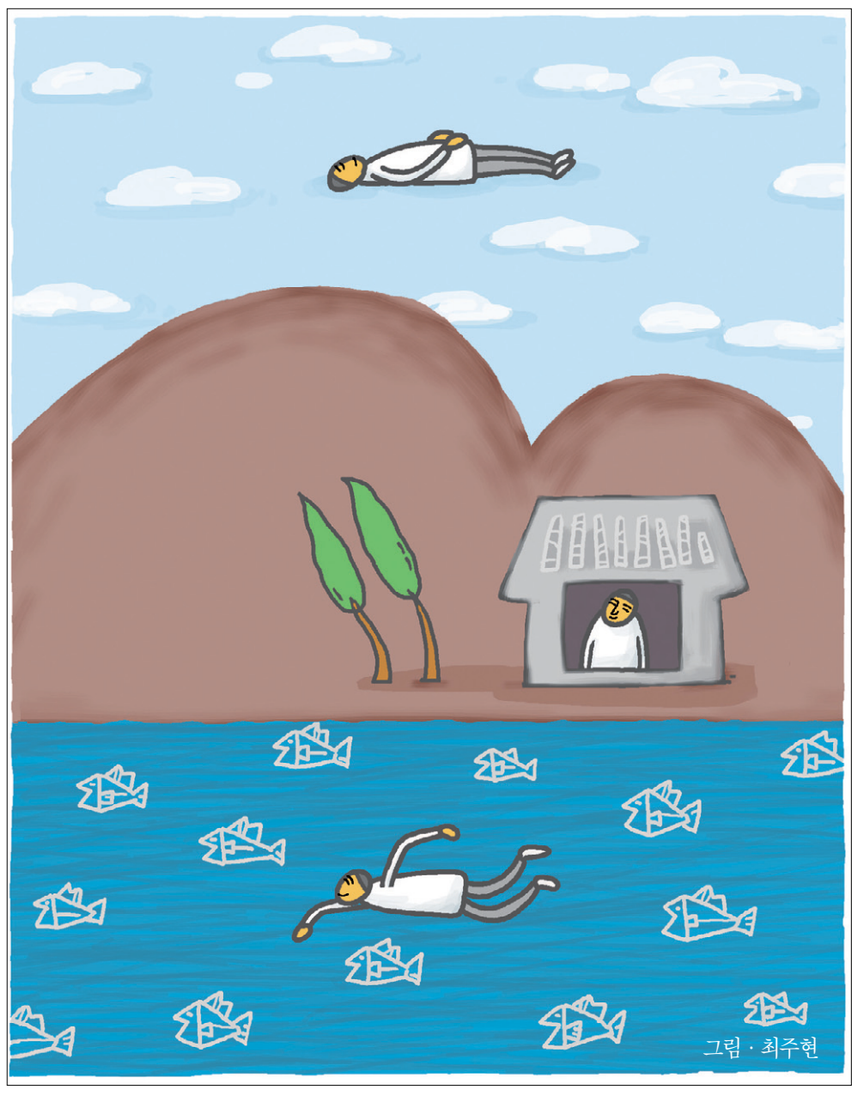
산하대지와 사람의 행불행과 생사조차도 한 생각에 달려있는 도리를 문수 스님은 일찍이 체득하고 있었다. 다음날 문수 스님은 동네 주유소로 가서 석유 두 통을 샀다. 강이 잘 보이는 한적한 강둑에 석유를 옮겨 놓고 토굴로 돌아왔다. 스님은 토굴을 말끔히 청소하고 마지막 예불을 올렸다. 그리고는 유서를 썼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 뭇생명을 존중하라, 국민에게 진실하라.” 오로지 현정권을 향한 지극한 충언이요 절규였다. 스님은 유서를 법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 늘 앉던 좌복 위에 법복을 올려놓았다. 조용히 토굴에서 내려온 스님은 중간에 등각 스님에게 들려 묵묵히 눈인사를 나누었다. 등각 스님은 문수 스님이 평소처럼 포행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스님의 표정은 일상과 똑같았고 편안해 보였다. 문수 스님은 강둑에 도착해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스님은 석유통을 들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한 모금 두 모금, 한 되, 두 되…. 스님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석유를 천천히 마셨다. 남은 석유는 몸에 부었다. 정수리를 타고 내리는 석유는 스님이 입은 법복을 적시고 고무신에 흥건히 고여 들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이름 모를 잡풀 몇 포기가 있을 뿐 다칠 중생은 눈에 띄지 않았다. 스님은 불을 붙이기 전에 자성중생과 앉은 자리의 풀포기와 중생들에게 미안해하며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과 참회진언을 외웠다. 행여라도 나의 이 행위에 놀라거나 희생되는 중생이 없도록 미리 오방에 알리고 참회했다. 염불소리는 바람결에 조용히 퍼져 나갔다. 문수 스님이 라이타를 꺼내 들었다. 가부좌를 하고 앉은 무릎 아래에 불을 붙였다. 산들바람은 스님의 몸에 불꽃을 한송이 연꽃처럼 이끌어 주었다. 스님은 불길이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열기를 느끼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나의 이 소신공양을 받으시고 겨레의 혼과 조국의 산하와 뭇생명은 길이 안위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그 다음날에서야 뉴스에 분신자살로 짤막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유서의 내용은 전국 국민과 정부요로에 전해졌다.

소신공양의 숭고한 뜻이 국민들 사이에서 잠시 술렁거렸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좀 더 효과적일라면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어떤 이는 “스님이 목숨을 가벼이 했다”고도 했다. 스님의 유체를 수습한 도반 등각 스님의 말에 의하면 스님은 꼿꼿이 가부좌를 한 채 수인을 하고 있었고 표정은 평화로웠다. 스님의 다비식 후 습골하는 과정에서 24과의 사리와 다수의 치아사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25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치아가 녹지 않고 사리로 나온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불교계에서는 스님의 소신공양을 기리고 장례를 법다이 치뤘으며 유언을 널리 알리었다. 스님의 쇄골은 강 언덕에 뿌려졌다.


그림 · 최주현

한 모금 두 모금, 한 되, 두 되… 스님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석유를 천천히 마셨다. 남은 석유는 몸에 부었다.



영담 스님
청도 보갑사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각종의식
범음범패, 바라작법
010-2290-9270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 종 양 도
● 범종 : 높이 64cm, 둘레 130cm, 두께 2~3cm
● 좌대 : 길이 68cm, 높이 113cm
● 구입가격 200만 → 판매가 110만원
● 상태 : 양호, 울림소리가 아주 좋음
018-406-3073

기도 하실분이나
요양을 하실 분은
영천 성심사에서
무료로 휴양처를
제공합니다.
▷영천 성심사
054)336-9233

출가자(비구니, 행자)구함
본 도량은 육지장보살을 모신
바른 지장기도도량으로써
비구니 스님 및 행자를 구합니다
· 자 격 : 20~30대, 학력, 지역 관계 없음
· 수행 후 주지 임명
(수행중 승려증 발급, 독자운영)
· 출가 하실분만 전화바랍니다.
(장난전화 절대사절)
010-2599-6020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 포교당
02)338-215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종무소임 맡으실
비구니 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645-99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3세,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부전스님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연락 바랍니다 / 울산
010-9318-3230

수행정진하실
예비 女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010-9409-5001
011-9762-3672

경험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경기 용문
010-8922-1168

역학을 배우면서
가족같이 지내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전남, 34~40세 미만
010-6536-0120

부전스님
모십니다
▷시흥, 50세미만
011-314-9848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도서지역)
법납 10년이상,
50세 미만 권속있는스님
및비구니스님
꼭필요한스님만 전화하세요
011-663-4893

공양주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65세까지,
강원도 상운사
011-764-3661
033)482-3382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공양주
화주보살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010-8861-1785

암자 지을 땅
시주하실 불자님
인연 만남
원성취 지대원
010-4182-1874 신묘

비구스님
모십니다(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여주
010-8819-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010-7326-2588
종무법사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종무원(女) 및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 종무원은 엑셀, 회계, 신도관리 가능하면 됩니다.
▶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 숙식제공합니다.
1) 대우는 초보자외는 월급 기본 100부터
2) 실력이 있으신 분은 월급 120부터
3) 특별수당 호봉수에 따라 급여 인상됩니다.
4) 나머지 내용은 면담 후 절충 요망 합니다.
5) 휴가는 2~3일 입니다.
서 울 011-707-5552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대 체 의 학 비 법 전 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본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의활용, 초간단명리(적중율90%)
제2강 : 오행과 침술, 따주기 비법, 내몸내가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 허리, 무릎, 중풍, 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 박사 강의)
강 의 : 매주 화~수요일 10시~16시(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 야간 070)8861-3359 팩스 : 221-3358
핸드폰 : 스님 010-9027-3117
함께 나누는 세상을... - 좋은날 되소서 - 의암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미륵사
● 법 명 : 해승
● 주 소 :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154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작금에 이르러 (사)한국불교 조계종 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음을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문공부등록 141호(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써 본인외의 (사) 한국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체가 아님을 타종단 큰스님과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 및 본종단 스님들께 알려드리오니 피해가 발생 하지 않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사)한국불교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즉시 명칭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시 일어나는 모든 법적문제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6월 16일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 자 화
총 무 원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25번지
총무원장직통 : 010-3262-100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45(실평)
- 요사:45평 ● 부지:46평
- 가액 : 20억
  산세수려한 고찰터에
  자리잡은 사찰임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 110평
- 건평 : 100평
- 가액 : 4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토굴 도량터

- 저희 대력불사는 스님 및 수행자를 위하여 전국의 좋은 수행처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불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지역 · 원하시는 사찰 · 원하시는 토굴 · 원하시는 도량터 이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대 가람터
- 총 평수 : 8만 6천평
- 4만여평 평지, 1만평 (약초재배)
- 위치: 진주, 단성 근처
- 산세 및 주변풍광 최고, 계곡물 철철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부 지

- 토지면적: 15,000평
- 위치: 서울 – 1시간거리
- 주위에 자연휴양림이 있음
- 용도: 사찰, 요양병원
  연수원, 기도원 펜션부지
- 가액: 25억

010-9281-7255

사 찰 안 내

- 부지: 15,000평(장묘산업지)
- 가액: 15억

요양병원
- 대지: 1,200평 병상 390개
- 건평 3,400평(공사중단)

사찰부지와 요양병원이 함께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사업성 이양도 함. 서울에서 전철이 운항지역에 위치 함(분리 양도 가능)

최고의 명승 사찰터

-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서울에서 2시간 거리)
- 평수 : 31,500평(임야20,600평, 전10,900평)/ 3억2천만원(평당10,000원)
- 풍기 IC에서 7분거리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계곡이 본 부지앞으로 흐르고 있음
- 토종 산림이 울창하며 임야 곳곳에 샘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약수가 솟아남
- 테라피한방공원조성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치가 우수하며 최적의 등산로 코스
- 봉현 한천은 예로부터 물이 차고 깨끗하며 명명되어 온 지역이며, 본 부지 터는 예로부터 명승 사찰로부지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토지임.
- 소백산 비로봉, 옥녀봉 등 등산로 입구까지 10 ~ 20분 소요
- 풍기온천까지 10분 소요
- 용도 : 사찰부지, 휴양지, 펜션, 수련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010-2037-728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27만원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040-35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DC 無)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 1층 허가된 주차장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주차장 완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80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법당 30평, 2층 요사 40평 1층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 종각 약 1평
-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 가액: 4억

010-3112-3513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 이상
-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 주차가능
-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황영산 자락
- 대지 130평, 법당, 주지실, 대중방
- 공양간, 산신각, 기타 시설 일체
- 전세 5000만원(시설비 포함)
-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871-15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점촌 시내
- 대지 128평
- 요사채 콘크리트 30평
- 법당, 목조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38-985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사림동
- 평수 50평 ●모든시설 완벽 (신설2개월, A급)합니다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3천 5백만원 (시설+전세) 월 6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6436-807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시 수정동
- 요사채 방 2
- 기도방 1, 관음전
- 여수 오동도 옆 바다가 한눈에
- 가액: 3천 5백만원

061)662-5580
011-676-536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 법당, 산신, 용왕
- 공양간 아주 큼, 교통편리,
- 주차장 넓음
- 가액은 상담 후 조절

011-595-1522
052)295-3775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 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요지의 명당, 발전성 최고
- 가액: 시설비 포함 9천 5백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경산시내 대도로변에있음
- 상가건물내에 법당주불은 관세음보살,산신,칠성탱화.
- 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시설비4백만원 보증금3백만원 월세 이십오만원(250.000원)

010-3780-618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웅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찰 터 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 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0-5427-644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바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지리산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4784-550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급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가격절충)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지리산 안방골
- 조용한 수행처
- 황토집
- 보살님 환영합니다
- 가액: 3천만원

055)884-1491
010-2563-6914

빌 딩 안 내

- 위치: 강남지역
- 대지:100평, 건평 330평
- 르네상스 호텔 뒤 일반 상업지역
- "10층까지 증축가능"
- 현 시세 100억
- 급 양도가 65억

011-211-3782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사찰안내

- 비구니 스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중심, 대지 67평
- 건평 35평, 큰방 2개, 작은방 2, 화장실 2
- 집안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1억 4천 3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시설완벽, 교환가능● 대지 1만 1천평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도심속의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부근
- 평수 140평, 법당 60평, 모든시설완벽
- 방사두간,공양간,종무소,기타등등 부산시내에서 최고의 위치와시설을갖춘 법당으로 불교학교 개설되어있음
- 현재 법회진행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직접 보시고 상담 후 결정
  보증금 2억 (최소한 5천~7천의 보증금으로 월세 가능

010-3868-74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재래시장 부근
- 평수: 54평, 4층건물 중 3층
- 법당 약 25평, 방 4칸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관리비 無)
- 시설 및 집기 일체 상담 후 결정
- 장소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055)372-3315/010-2553-8827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2억 5천만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평수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원목단, 동불 삼존불, 방 2 . 공양간 1, 시설완벽, 에어컨 2
-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6백만원

010-8268-9880 / 010-5361-5294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삼태안)
- 대지 200평, 전 포함 755평 기역자형태의
- 방2개 아궁이방포함 18평형의 미완성 상태 건축비 부담으로 급 안내, 허가 정상
- 이전가능 공정율 약 80% 상태, 자연동굴에서 흐르는 물 단독사용, 2차선 도로에서 약 1,000미터 끝지점, 건축비 부담으로 급 처분
- 급 안내가 7,500만원

010-6460-13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시내 중심지
- 4층건물 중 4층 ● 평수 70평, 옥상 넓게 쓰고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31-1094 /053)427-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㉒ 다리 길이1

의자에 앉아 무릎을 모아 보자

다리 길이의 차이는 건강에 있어 어떤 의미이고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리 길이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대부분은 골반의 뒤틀림으로 인해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리 길이 차이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기능적인 다리 길이 차이는 주로 짧은 쪽 다리의 종아리를 지지해 주는 골격과 Q각도(골반, 고관절, 무릎의 불균형 변형각도)의 증가로 짧은 쪽 다리의 무릎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심해지게 되면 골반 및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수술(인공관절) 등에 의해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단 한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바지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걷는 모습이 불안정 할 때는 다리 길이 차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다리 길이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상시 바르지 못한 자세가 습관이 되면 자세가 잘못돼도 그 잘못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익숙해져 불편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의 뒷부분이 닳는 정도로 현재의 체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신발 한쪽이 유독 심하게 닳아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이 한 쪽만 계속 닳는다는 것은 두 다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 삐딱하게 앉는 게 편하거나 어느 한 쪽 신발 굽이 너무 빨리 닳을 때는 골반과 고관절(다리관절)의 연결 불균형 변형으로 인한 다리 길이 비대칭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자에 무릎을 모아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좌우 무릎의 튀어나온 자리를 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쪽 무릎이 다른 쪽에 비해 더욱 튀어나와 보인다면 역시 다리 길이의 차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지금 베개를 베고 바로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은 땅에 붙인 체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 굽혀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의 높낮이를 손으로 문질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릎의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면 역시 좌우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부학적인 다리 길이 차이는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1~2㎝ 정도의 차이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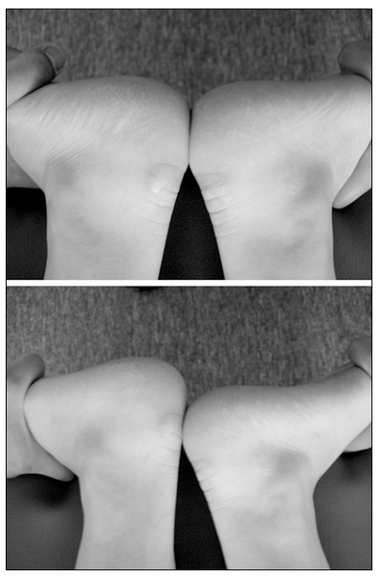
그러나 2㎝가 넘게 되면 전신의 체형불균형 증상 및 신경계의 기능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다리 길이 차이를 계속 교정하지 않을 경우 골반의 뒤틀림 등에 의해 다리 길이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 길이의 차이에 대해 "누구나 조금씩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오차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이 후천적인 불량한 자세습관으로 인해 생겨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초기의 작은 비대칭 상태가 3㎝이상의 심각한 상태가 계속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다리 길이 차이로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전신 체형의 불균형을 가져와 전신체형불균형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과 장기를 압박하고 기능저하까지 오게 될 수 있으며 만성피로와 원인모를 증후군들이 생기게 되는 점을 주목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좌우 다리 길이를 맞추면 골반, 다리, 발, 그리고 어깨와 목까지 전신의 체형이 곧고 바르게 됩니다. 물론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몸의 밸런스가 좋아짐은 물론 휜다리, 굽은 등, 골반불균형 등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다리 길이의 교정 후(위)와 전(아래)의 모습.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⑩ 여름철 건강관리1

조금 짜게 따뜻하게 드세요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小天地)이다. 천지자연의 기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음양의 기운은 평형을 잃는다. 말 그대로 건강을 잃게 된다. 양생의 비결은 계절의 변화에 순응해 섭생과 생활을 조절함에 있다.

일찍 찾아온 여름에 이번에는 찜통더위까지 예보하고 있다. 여름은 낮이 길고, 덥고, 습도가 높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은 인체에 내장된 시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시차병과도 같은 자율신경계의 실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체중이 줄고 이유 없는 피로가 늘어난다.

낮 시간이 길면 활동시간은 당연히 길어진다. 그만큼 휴식 시간은 짧아지게 마련이다. 그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 더위는 그 자체로 인체의 대사 활동을 높여 준다. 지속적인 에너지의 발산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피로를 유발하는 계절이다. 더위와 함께 오는 습도는 불쾌지수를 높인다. 높은 습도 자체가 인체의 대사활동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짜증으로 대표되는 각종 심신증을 일으킨다. 이래저래 여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계절이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요점은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의 해결과 함께 정신적 긴장을 낮추는데 있다. 만물의 생장활동을 극대화 시키는 여름의 계절적 특징은 자칫하면 사람의 몸을 속빈 강정과 같이 허하게 만들 수 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해소를 위해 낮잠 또는 순간 수면이 필요하다. 점심시간 후 가벼운 낮잠, 정신노동자와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특히 권하는 바다.

전통적인 여름 음식으로 삼계탕, 개장국 등이 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은 고단위의 단백질 식품이다. 여름일수록 보약과 갖가지 영양식이 필요하다.

날씨가 더워지면 냉수를 많이 찾게 된다. 많이 흘린 땀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함은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덥다고 찬 음료를 마구 마셔대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흡수되는 과도한 수분은 체액의 농도를 낮춘다. 혈액으로 흘러든 과도한 수분은 정상농도에 적응돼있는 혈액의 구성요소들을 파괴한다. 낮은 기압에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것처럼, 적혈구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부풀어 오르다 파괴된다. 급격한 빈혈현상이 초래된다.

찬 음료의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빈혈과 아울러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 여름에는 음식을 조금 짜게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찬 음료는 속을 차게 만든다. 위와 장은 정상적인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기능이 저하된다. 온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활성이 떨어진다. 흔히 속이 차다고 하는 각종 소화기 및 전신증세들이 유발된다. 보다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여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 맥이 약하게 나온다. 갈증이 나면 여름에 오히려 따뜻한 물을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마시는 한방음료로 생맥산(生脈散)이란 처방이 있다. 궁중에서는 '여름에는 생맥산 겨울에는 쌍화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애용됐다. 힘이 없고 갈증이 그치지 않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맥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담긴 처방이다. 인삼1, 오미자1, 맥문동2의 비율로 이뤄진 처방이다. 여름철에 대표적인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 입맛이 없고 갈증이 나며 맥이 약하고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지가 허약한 이들, 특히 하절기 만성피로에 좋은 처방이다.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여름철 건강의 첫 단계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㉒ 당랑권2

18문파의 기술 모아 만들다

당랑권은 북파권법 중에서도 특히 실전성이 높은 18문파의 기술을 모아 만들어진 것으로, 북파권법의 집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당랑(사마귀)이 먹이를 잡는 모습을 참고해 만들어진 권법이며 보법 또한 독특해서, 원후보법이라 불리는 원숭이가 발을 교차시키면서 걷는 모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랑권은 전법 특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당랑수에 의한 공격을 중점적으로 구사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을 주체로 하는 파를 경당랑권(硬螳螂拳)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자세를 발걸이나 관절기로 무너뜨려 기술에 '허'를 섞음으로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공격을 구사하는 것을 주체로 하는 연당랑권(軟螳螂拳)입니다. 당랑권 역시 다른 문파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단련하는 '연공법(練功法)'을 수련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랑권의 연공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타사포(打沙包)라고 하는, 철사(鐵沙)로 채운 포대를 손으로 치는 연습법입니다. 허리 높이에 놓은 포대를 손끝과 손등, 손바닥, 손날에 이르는 모든 부분으로 치는 것입니다. 손 부분의 단단함을 길러서 공격이 명중했을 때 살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태극 당랑권.

둘째 타사대(打沙袋)입니다. 한마디로 샌드백에 손발을 치는 수련법이며 허리 정도에 대상을 둔 타사포와는 달리 상대와의 거리감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삽사법(揷沙法)인데, 콩을 채운 큰 통 속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연습법입니다. 이것은 손끝을 단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끝으로 점혈을 찌르는 것을 주체로 하는 당랑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연공법입니다.

넷째 당랑수법(螳螂手法)은 높은 곳에 매어 늘어뜨린 두꺼운 나무막대를 좌우교대로 신속하게 감는 연습법입니다. 구와 루의 힘을 기르는 연습법으로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섯째 배타공(排打功)은 피부를 단련하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함께 연습을 하는 사람끼리 팔과 다리를 서로 부딪치는 방법과, 대나무 다발에 단련할 부위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이 전신을 무기수준까지 단련하는 연공법이나 난점도 있습니다. 연습 도중에서 외상을 입을 뿐 아니라, 그 상처에 의한 후유증을 입을 정도로 육체를 파괴하고 마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랑권에서는 각 연습법을 마친 후에 약을 그 부위에 적시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단련법은 당랑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무술이나 마찬가지로 그 권법만 가지고 대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무술은 '유리 같은 손으로는 어떠한 것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권법을 사용할만한 단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연비권을 수련하면서 위와 비슷한 단련을 했습니다. 모든 단련법은 인체의 극한을 넘는 수련을 해야 하기에 몸에 많은 무리가 옵니다. 위의 단련법들은 많은 이들이 들어본 철사장이라는 수련법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 수련법은 반드시 약을 구해서 발라야 하는데 그 약이라는 것이 호랑이 앞발 뼈를 엑기스로 다려 바르는 것입니다.

무술가라면 자신이 원하는 강인한 파괴력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불자 정보

778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 1동 안락로터리 서원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앞
● 평수 50평
● 법당1, 방3, 주방1, 화장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약사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213-0108

암자 ·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710평, 대지 300평
● 신축건물 30평, 창고 요사채 20평
● 아미타 삼존불, 약사여래불, 용왕단, 신중단
● 계곡물 흐르고 연못도 있음
● 큰 미륵바위 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010-8794-12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 신길역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평수 45평, 2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시설완비
02)834-3360
02)848-1774

기 도 처 안 내
● 위치 : 영덕 해맞이 공원 부근
● 전망 좋은 바닷가
● 해양 도로 접
● 단청주택, 30평
● 수리 깨끗함
● 가액: 5천 7백만원
053)981-3714
010-4041-31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3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찰, 펜션, 암자 가능 지역(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방정리 부근
● 임야 : 8,000평, 대지 760평 中 大370평 (田 100평, 임야 200평)
● 1,2층 펜션 9동 중 독채형 4동 식당1동
● 주차장 완비, 약수터 포함
● 가액: 융자 1억, 가액 6억
● 인터넷에 '시골풍경팬션' 클릭
010-4377-3387
018-376-3387

서울 마지막 명찰터
● 대만의 불광선원 같이 될 자리
● 근린 300평+배후임야 12000평
● (역사 관광테마 공원 및 다목적 응용)
● 가액: 70억
● 상담 후 조건, 조정가
010-6805-133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 건물 약 50평
● 땅은 종중땅
● 건물 등기 有
● 가액: 3천만원
010-8852-1470
법정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 대지 290평, 전 910평
● 건평 23평(조립식)
● 천장산 옛 사찰터
● 교통양호. 마을 제일 위쪽
● 가액: 9천만원
010-3518-39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내
● 5층중에서 2층
● 1층은 시장
● 법당, 주방, 침실, 욕실, 사무실
● 평수 55평
● 보증금+시설비
● 가액: 5천 5백만원 월 50만원
010-5495-4678

토굴 및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
● 평수 대지 100평, 전 약 650평
● 건물 약 20평
● 전기, 수도, 시설 갖춰져 있음
● 가액: 1억
010-5692-30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2층 30평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 주택가 횡단보도 신호등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온천천 공원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010-2446-26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송우리 홈플러스 뒷편
● 상가주택, 3층건물에 2층
● 신축건물, 도심속 포교지 최적
● 비구니스님 환영
● 상가지역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 500만원
010-9038-89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 상가건물 1층, 전체 2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400만원 ,월세 37만원
010-3107-12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연기군 세종도시 근접지역
● 전통사찰 삼존불 기도도량
● 미륵불 및 주차장 완비
● 요사채 방3, 주방, 거실, 심야전기
● 창고에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전세가능)
● 자세한 사항은 상담 후 결정
010-5498-6544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방계2리
● 대지 248평, 건물 29평
● 큰방 2, 작은방 1, 화장실 안1, 밖 1
● 창고 8평, 거실, 주방
● 가액 : 2억
033)731-7376
010-7731-73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 법당(삼존불) 방2, 주방
● 5층건물 중 2층(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 1백만원(점충가)
● 입주 후 즉시 법회 가능
016-537-5574
010-4520-54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최중심 (지하철역)
● 평수: 단독 3층 (1층 52평, 2층 30평, 3층 35평)
● 지하 및 옥외 주차장 약 50평
● 종무소 법당 등 최고시설 완벽
● 가액: 보증금 2500만원에 월 85만원
● 시설비 별도
● 문의, 내방시 상세안내
010-6780-6271

다구를 찾아서

17 차의 보관

항상 거처하는 곳에 두어라

차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여야 처음처럼 차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이다.

초의 스님은 <다신전(茶神傳)>「장다(藏茶)」편에 "만든 차가 건조되면 먼저 늘 쓰던 합(盒) 중에 가득 넣고서 겉에는 종이로 입구를 봉한다. 삼일이 지나서 차의 본성(本性-차의 색향기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은근한 불에 완전히 말려서 식은 후 단지에 보관하는데 차를 살살 쌓아 채워서 여린 죽순의 껍질로 입구를 싼다. 편 죽순 껍질과 종이로 여러 겹 단지의 입구를 팽팽하게 봉한다. 그 위에 불에 묻었던 식은 벽돌로 눌러 고정시켜 다육(茶育-차를 말리거나 보관하던 기구로 장마철에는 숯불을 넣어 차의 습기를 제거하던 도구) 속에 넣어 보관한다. 일체 바람이나 불기운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을 쏘이면 차가 냉해지기 쉽고 불이 닿으면 누렇게 되기 쉽다.

(造茶始乾先盛舊盒中外以紙封口過三日後其性復復以微火焙極乾待冷貯壜中輕輕築實以箬若襯緊將花筍箬及紙數重封緊壜口上以火煨磚冷定壓之置茶育中切勿臨風近火臨風易冷近火先黃)" 라고 하였다.

초의스님은 이를 통해 차를 만든 후 차의 색향기미(色香氣味)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차를 보관하는 방법을 소상히 적고 있다. 차를 만든 직후에는 차에 불기운이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차를 안정시키고 불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일을 기다렸다가 재건(再乾)한다. 약한 불로 다시 차를 말리면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차를 담은 항아리 입구를 불에 달궜다가 식힌 벽돌로 눌러 고정시키는 것은 방습(防濕)을 위한 방법이다. 특히 다육은 원래 육우의 <다경(茶經)>에 차를 건조하는 도구로써 단차(團茶)를 만들 때 쓰던 도구인데 중국에서는 장마철에 차를 습기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현재에는 비닐포장지와 진공포장기술로 습기와 잡냄새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린 죽순의 껍질과 한지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선인(先人)들의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관찰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당물차호(唐物茶壺). 남송~원대(13~14세기). 일본 덕천(德川)미술관 소장. 높이 39.7cm 구경 11.4cm 몸통둘레 33.2cm 바닥지름 12.7cm.

<다신전>뿐만 아니라 당대(唐代)부터 명(明)·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다서(茶書)에는 빠지지 않고 차를 보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차를 보관하는 곳의 공통점은 이렇다. 첫째,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하고 냉한 것을 싫어한다. 둘째, 냄새나는 것을 싫어한다. 셋째,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싫어하지만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두지 않는다. 특히 명대 허차서(許次紓)는 다소(茶疏)에서 "차를 보관하는 장소는 모름지기 항상 거처하는 곳에 둔다. 사람의 온기가 가까우면 항상 따뜻하고 차갑지가 않다. (중략) 마땅히 차를 두는 둔치의 평상에는 건상(巾箱)이나 서록(書簏)을 두지 말라. 더욱 금기할 것은 음식그릇과 함께 두는 것이고 향약(香藥)을 함께 두면 차에 향약의 냄새가 배고 해미(海味-해초, 해산물)와 같이 두면 차에 해미 맛이 배게 되고 그 나머지 종류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하루에 불과한데도 누렇게 변하게 된다." 고 하였다.

차를 잘 보관하고자 냉장고나 창고와 같이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차단된 곳은 피하고 되도록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는 오염이 쉽게 되는 것이기에 음식물이나 향이 강한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차를 꺼낼 때에는 손으로 집어내기보다는 차시나 차칙을 사용하고 차를 꺼낸 후에는 꼭 밀봉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의 보관이 차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 일본에서는 차를 담는 항아리[茶壺]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다. 초겨울(11월)에 봄에 만든 신차(新茶)를 넣어서 밀봉해 뒀던 차항아리를 개봉하는 개봉차회(開封茶會)가 열린다. 이때에는 차항아리가 차회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좋은 차항아리도 수집의 대상이 된다. 위 사진의 차항아리는 원래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 소유였다가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쓰 등을 거쳐 현재 덕천(德川)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물(唐物)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말한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8 월정사 숲길에서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을 걸었다. 한 발 두 발 숲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숲에 깃든 모든 것들을 내주었다. 숲은 늘 그랬다.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내주었다. 숲이 만든 바람과 햇살을 내주고, 걷고 있는 고독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그 고독이 놓고 간 고백들을 영원한 침묵으로 지켜줬다. 분명 자연이 사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며 숲길을 걸었다.

스님들이 숲길에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지나온 서로의 발자국을 밟으며 다시 숲길을 걸어갔다.

어쩌다 숲길을 걸으면 그 시간은 왠지 특별하다. 그것은 평소에 쓰지 않던 '마음'을 꺼내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길은 그랬다. 마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에게만 '길'이었다.

옛 판화의 세계

법음을 전수받아 법요를 얻다 (膽巴國師)

원나라 때 서천축의 옛 달마실리로부터 법음을 전수받아 익혀 비밀리에 그 법요를 얻은 담파 국사가, 성종황제가 북방지방을 순찰하자 코끼리가 모는 가마를 타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장면이 삽화로 판각돼 있다. 운천이라는 지방을 지나다가, 이 땅에는 신령한 괴물이 있으니 황제가 탄 가마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비밀신주를 지니고 이를 기피하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이에 비바람 속에서도 황제의 행전만은 아무 근심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담파 국사는 몽골 문자를 만든 파스파의 제자이며 스승의 천거로 황제를 보필하게 됐다. 다양한 기적을 통해 황제들을 교화해 국사에 위치에 올랐으며 입적한 후에는 황제로부터 '대각보혜광조무상담파제사'란 시호를 받았다. 담파 국사의 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뭄을 해갈하는 비를 오게 한다든지, 기도로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병을 낳게 하는 등의 영험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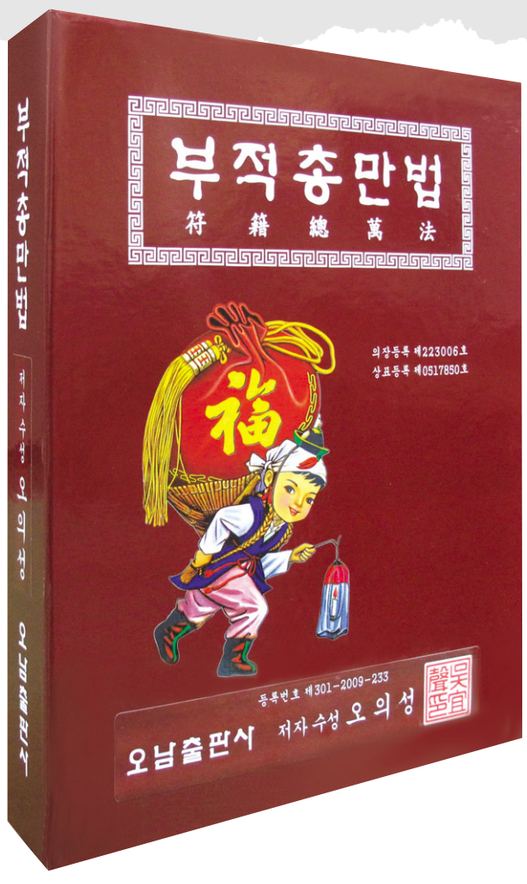
원정 연간에는 해도가 국경을 침범해 오자 마하갈리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윽고 항복문서가 도착했다고 전해진다. 담파 국사의 이러한 이적의 영험이 드러나자 황제는 매우 귀한 상을 하사하고 어전교위 열 사람을 나눠 그를 위한 시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티벳 불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와 어딘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삿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티벳 불교는 이러한 수행의 영험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얻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철학적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하거나 좋아한다는 한쪽 면에만 치우친 편견은 버릴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도 이제는 수행을 통해 이 시대의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신도들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영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앵무새의 메아리만 들리는 불교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영험으로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환희심이 넘치는 수행공동체가 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담파국사(膽巴國師).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者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망상은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자 거름!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문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행동도 거칠고 말도 험해서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업무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답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저놈!' 하고 엉크러쥐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저놈!' 하고 엉크러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에서 나쁜 말을 해 왔더라도 '아이, 내가 있는 탓이지. 소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있을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볐지.' 그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려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쪽에서도,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괜히 자네보고 이렇게 나쁜 언행을 했는데 참 미안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더 절친해진답니다. 또 어느 집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기에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 당신 주인공의 스위치를 눌러도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거고 그 아들의 주인공에다 맡겨 놔도 당신까지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버지는 벌어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앨 쓰고 있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는 "얘,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몸인들 지탱하겠니?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고 웃으면서 과일도 깎아 주고 밥도 차려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하고,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인제 내일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모습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해졌답니다.



그림 · 최주현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아,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지고 가겠지.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해 보고 실험을 해 봐야 체험이 되지, 내 말만 듣고 무효로 돌린다면 그건 또 무효죠. 그러니 내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사랑하고 가르치라 이거죠. 그리고 당겨 주고 실천을 같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생각에 달린 거니까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공부 재료로 삼아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망상을 끊어야 하는지요

문 스님, 자주 망상을 하게 돼서 괴롭긴 하지만 또 그 망상 속에서 공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그 손가락 하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고요?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갖다가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 한 번도 백지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가 쓰인 저 종이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 이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는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요? 육조 스님이 홍인 선사한테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를 말한 겁니다. 저 불 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육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진 육식, 이것을 죄다 한데 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 저 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이니까. 결국은 팔만대장경도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나입니다. 저 '불(佛)' 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망상 올라오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그 망상이 올라온 그 자리에 다시 그걸 돌려놓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 이 마음 하나를 잘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두리봉산하 행 운 사
회주 법공 덕룡
주지 이룡 행천
총무 지현
신 도 일 동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전화 010-9189-3346 / 011-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백암산 오 도 암
법사 정각심
신 도 일 동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430-1
전화 054)833-0668
오도암포교당 호심사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전화 053)984-034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어떤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근본자리에 맡기세요

☞25면에서 계속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문 스님, 어떡하면 좋을지요? 삶에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바쁜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몸도 고달픈데 언제서부턴가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고 하나 있는 자식은 사고뭉치랍니다. 전자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이럴 때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빌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답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다닐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살라고 해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하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 짜증도 날 것이요, 화도 날 것이요, 이럭하고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돼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런다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 그 육체가 움죽거릴 테니깐요. 그러니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짓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다 입력을 되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앨 쓰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 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걸리고 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가발전소요. 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천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 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외려 그렇게 해서 분기가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서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전부 끼리끼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같은 것 중에서도 굵은 것, 중, 하 이렇게 골라 놨으면 놨지, 절대로 같이 섞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차원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모자식지간에 살면서도 아,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으니 어디가 병이 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를 위해서 해 준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도 요렇게 들여다보고는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아, 요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약아서.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본받는 게,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외려 더 빗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것은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에 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한 철 탤런트가 소임을 맡아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듯이 우리 인생 한 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들도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돈을 만들어서 쓰던 장난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한 철 동안에 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는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권 말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대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요. 타의에서 형상을 구하고 이름을 구한다면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으니라. 그리고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

문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지체부자유자나 정신박약 등의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을 지어서 그런 건지요?

답 자기가 한 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도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자기가 받고 가죠. 남의 따귀를 때렸으면 따귀가 오고요. 그런 거죠. 남을 기껏 두들겨패 놓고 왔다면 그쪽에서도 앙심을 먹고 또 두들겨패러 여럿을 끌고 또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린애가 둘이 놀다가 한 애가 불집게로다가 그냥 다른 애 정수릴 쳤는데 찔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후로다가 논란이 됐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불집게로다가 그렇게 찔려서 죽었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주 드는 예지만,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데 그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옛날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통에다가 오줌을 받아 가지고는 깻벌레 씩씨거리는 거를 집게로다가 집어서 그냥 연방 넣어서 죽였습니다.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고만 인간으로 화한 겁니다. 그동안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그 집의 어린애로 화한 겁니다. 형제가 된 거죠. 그 형제가 인제 글방에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난데없이 오시더니, 그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오늘 저녁이면 원수를 갚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더랍니다. 겻불을 두 군데다가 피워 놓고 쵤 망으로다 이렇게 쳐 놓고 공석을 덮어 놓고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단단히 덮고선 아무리 부르더라도,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인기척을 하지 말고 인기척이 다 끊어진 뒤에도 한 시간 후에 나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식으로. 그런데 아, 얼마 있으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더니 아, 나중에는 그냥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넘어 가면 우린 원수를 갚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냥 팔팔 뛰고 울면서 괴성을 지르며 찾더라는 겁니다. "이 연놈들에 대한 원한이 수십 년 동안 그냥 응고가 돼서 내가 이 시간을 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 연놈들을 어떻게, 어떻게 씹어 삼켜야만 원수들을 다 갚느냐?" 하더랍니다. 아, 그럭하고서는 너무나 징그러워서 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가 그냥 싹 붙어서 전부 꿈틀거리고 한쪽에는 거미가 붙어서 그 안으로 그냥 잔뜩 들었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그냥 꿈틀거리고. 그 겻불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스님께서 그 노인네들을 건져 주신 거지요. 그러고서 그 스님은 그 깻벌레와 거미들을 정식으로 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벙어리로 태어난다든가 불구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도 죽겠지만 보는 사람도 정말 그 못지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모두가 이 세상천지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앞에 닥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흑인이 백인 낳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아주 쵤두쵤미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거저가 없고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참 쵤두쵤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고 선덕을 쌓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공부를 한다면 아주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정치권력과 도덕성 제고

6.2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완승, 한나라당의 패배로 귀결이 났다. 어느 선거든 그 결과가 어떻든 이는 민심의 반영이고 민심은 천심(天心)임을 새삼 또 상기시켜 줬다. 야당에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 주장하고, 여당 쪽에선 그간 민심에 대한 공감 부족 탓이 큰 것으로 반성하는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MB정권이 들어서고 주요 국가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개 절차의 소통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대국민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려는 정신의 부재가 지적되곤 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개선시켜 보려는 MB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은바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 그 방법이 구시대적, 목표지향의 일방적 선도라는 것에서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항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해서 국민과의 충분한 교감의 부재는 그 권력행사에 한계를 긋게 했다.

반면 그간 야당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수권가능 주요 정당으로서 온당한 처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 야당 쪽의 정서적 반응을 보면 마치 권력 금단증상에 가까운 행태를 많이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아 채 가시지 않은 국민적 애도 감정을 의도적으로 이번 선거에 활용하려는 속셈도 엿보였다. 이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을 선거에 활용하려던 여당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어느 권력의 집단이든 그 집단 자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는 특성이 있을 터다. 비록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자발적 선택이란 권리가 주어지지만, 권력간의 쟁탈싸움에서는 상대의 단점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만이 정당한 것으로 표방한다. 짧은 우리 현대사를 보더라도 권력을 획득한 뒤엔 국민들을 허수아비처럼 이용했다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든다.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비록 압승을 자축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뇌리가 그리 맑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정권은 알다시피 지난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얻어진 영향이 많다. 그 후 자기 우월의 폐쇄적 집단 논리가 횡행된 바가 많다고 느껴졌으리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신화를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잘못됐다는 뜻은 없다. 허나 이 시대의 국민의 달라진 의식을 읽지 못하면 그런 의지는 또한 자기애적 착각(illusion)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간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보면 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양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어느 정권이든 독점적, 일방적 방향으로 가면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권력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세력에 표를 던지곤 했다. 덧붙여 이런 흐름을 보고 반대세력은 기존 정책의 문제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몰아세우며 극단적 또는 선동적 구호로 애국심을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강변해왔다. 국민의식은 점차 진화가 되고 있는데 위정자들의 사회적 진화만 덜 된 탓이다.

이제 국민은 권력의 교활함과 타락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준에 와 있다. 불확실성이 전제된 미래일수록 국민들은 어떤 '미신'이라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챙겼다 하더라도 그 권력집단의 우월성이 결코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희생양(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 등)으로 삼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제고나 사회 발전을 위한 근본적 통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권력행사에 있어 각기 위정자들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뜻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의식을 무시한 또 다른 권력의 남용이 생긴다면,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나 화합의 뜻이 아니고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되고 만다.

진보는 결국 권력의 도덕성 회복에 있음을 재삼 상기시키고 싶다. 그 어떤 정책대안 제시에 앞서 권력의 도덕성 회복이야 말로 미래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사부대중 칼럼

안수경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기도는 인과 받아들이는 과정

동안거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어느 초겨울날이었다. 낯설고 어두운 오대산 길을 버스에서 내려 홀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외국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들이 거짓말처럼 모두 무너져 내렸다. 망연자실해 지리산 자락의 한 연립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스님에게 연락이 왔다.

선방을 처음 여는 곳에서 숟가락이라도 놓고 도와줄 사람이 3개월 정도 필요하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보라는 스님의 권유에 나는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공양간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한 채 내심으로는 현실의 막막함을 이겨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길이었다. 막상 가서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공양 준비를 도와야했고 설거지를 하느라 피곤해서 틈만 나면 쓰러져 자느라 대웅전에 들어갈 시간도 내지 못했다.

선방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어서 발우를 펴지 않아 쏟아져 나오는 그릇 수는 이제까지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았고 사기그릇들은 어찌나 무겁던지 떨어뜨려 깨뜨리기 일쑤였다. 음식 솜씨조차 없던 나로서는 그저 공부하는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이니 꼼꼼하게 다듬고 한 번 더 씻고 그릇을 한 번 더 깨끗하게 헹구는 것이라 여기며 조심스럽고 정갈하려 애를 썼다.

그러다보니 점차 도와주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도 익숙해지면서 남는 시간이 생기고 잔심부름도 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뵙게 되면서 스님들이 하는 공부가 최고인 것으로 보였다. 신심도 나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반야심경>을 사경하기 시작했다. 사경시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횟수를 정하지도 않았다.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였지만 차분히 정성껏 적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뱀이 몸에서 타고 나와 오른팔로 나가는 것을 보고 팔을 털면서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쩐지 절집에 어울리지 않는 안 좋은 꿈 같아서 속으로 찜찜해 하다가 주지스님에게 말씀드리니, 업장이 나가는 좋은 꿈이라 했다. 당시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이 많아지고, 심성도 꼬여짐이 많아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또, 어느 날 꿈에는 계곡에서 머리를 양쪽으로 묶어 올린 작은 분을 뵈었다. 나중에 상원사에 가보니 문수보살이셨다. 평소에는 잠이 많고 깊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꿈들은 마치 생시 같아 잊혀지지가 않았다.

어느덧 동안거가 끝나고 사경노트도 채워지자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하느냐고 여쭈며 1000배를 올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데 실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이전에 느꼈던 무겁고 공포스러웠던 절망감은 다소 줄어들었다. 감사하게도 여러 스님의 관심과 도움으로 진학하고 졸업도 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 후로도 여러 형태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 때마다 108배, 염불, 지장도량참법 기도, 명상 등을 통해 남다른 체험을 했다. 힘든 시기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버겁던지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 참으로 죽을힘을 다해 어렵게 한 고비씩을 넘기게 하여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야겠다고 맹세하고 기도생활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고 살다가 또 다시 비슷한 상황에 다달아서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반성하곤 했다. 그나마 나의 두터운 업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힘들게 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다.

힘들고 버거운 한 고비씩을 넘기면서 체득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뤄진다는 진리를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내 스스로 납득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난 일을 따지거나 파헤치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반드시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도 두터운 업보는 나를 짓누르고, 사는게 어쩐지 서글프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하기에 존재하는 알아차림이 있어 다행스럽고, 또한 다양하게 도움을 주신 이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오늘도 푸르른 하늘을 보며 여실하게 인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다짐해 본다.

사 설

화쟁위원회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문기구인 화쟁위원회가 출범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조화와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 총무원장에게 자문하는 것이 화쟁위원회의 역할이다. 불교 안팎에 산적해 있는 대립과 갈등 사안이 화쟁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잘 아다시피 우리 사회는 갈등 정도가 매우 높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펴낸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0.44보다 훨씬 높은 0.71이다.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네 번째다. 사회갈등에 따른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라고 한다. 이런 수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아간다.

화쟁은 대립을 조화시킨다는 말이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당시 다양한 불교이론들의 집대성하는 가운데 큰 사상으로 우뚝 섰다. 불교 전통 속에 나타나는 교관병수(敎觀幷修), 정혜쌍수(定慧雙修) 등은 화쟁사상이 있었기에 정립될 수 있었다.

불교가 사회갈등의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찍부터 있어왔으나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 사상과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불교 안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고, 사회 현안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려는 종단 차원의 의지와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화쟁위원회가 크게 활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태고종의 제도 개혁

한국불교 태고종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다. 사찰 수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종단이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 내홍을 겪으면서 종단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다.

그런 태고종이 개혁에 나섰다. 6월 10일 종단 운영의 근간인 각종 제도의 개혁안을 내놓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공청회에 참석, "수행교화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시대에 뒤처진 제도 등을 정비 보완해 정통종단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뜻 깊은 자리"라며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지혜를 모아 올해 안으로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단의 조직 및 인사, 교육, 불교재산관리, 분담금, 득도, 징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개선안이 발표됐으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안 중 총무원장선거법. 사자상승, 지방종무원 설치 등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개선안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발표자들이 숙고해서 만든 안일지라도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취지를 더 설명하고, 혹 모자라거나 넘치는 점이 있으면 채우고 비우면서 가야 한다. 제도 개혁은 종단의 미래를 가늠하는 대작불사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끼어들면 개혁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는 간데없고 갈등만 쌓인다. 그동안은 익숙했을지라도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흔쾌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로지 종단을 위한 애종심을 제도개혁으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Ⅱ·Ⅲ·**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신뢰성'**이 담보 되어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 교환 하실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개정** 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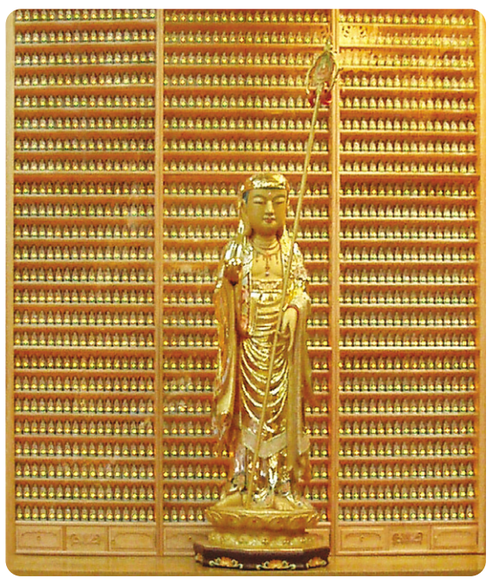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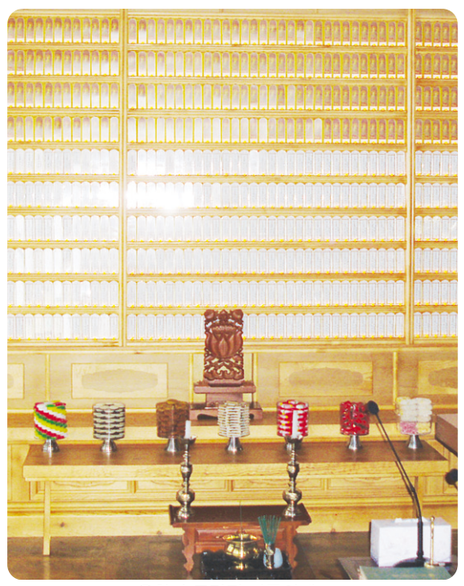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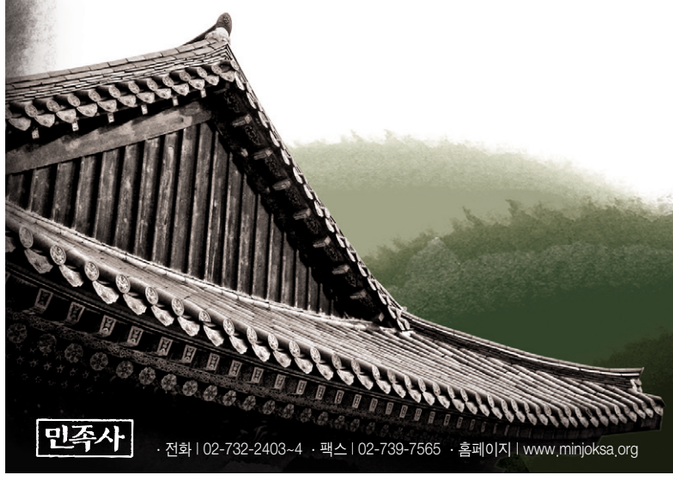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 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